

## 만들어진 예수: 잘못 맞춰진 예수 퍼즐에 대한 소고

: 예수 그리스도의 '성(性)'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강상우(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학 외래교수)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性)과 관련해서 정경(正經)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主張]들이 왜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소고다. 한 마디로 퍼즐을 잘못 맞춰기 때문에 다른 예수가 나왔다는 것이다.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각이 완전해야 하며, 또 그 조각들은 옆에 있는 다른 조각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런데 조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퍼즐 조각이 섞였거나[異質的資料], 조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資料紛失]. 더 나아가 조각이 퍼즐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不調和]에 발생한 현상인 것이다. 오늘날 정경과 다른 예수의 존재는 고의로 예수 퍼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통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매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잘못 맞춰진 예수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혼자(既婚者)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同性愛者)로 만든다. 잘못 맞춰진 예수 퍼즐은 정경의 붕괴와 다른 예수 존재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예수의 퍼즐을 맞추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맞춘 다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 맞추어진 예수가 나올 때는 “쿠이보노(Cui Bono), 누가 이익인가” 즉 잘못 맞추어진 예수를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다. 사제들의 독신을 반대하는 이들은 예수를 기혼자로 만들어 그들의 결혼을 정당화하고, 동성애자들은 예수를 동성애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바라! 예수 그리스도도 저렇지[既婚者·同性愛者] 아느냐? 우리의 행위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데?”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주제어: 예수 퍼즐. 다른 예수. 정경. 기혼자. 동성애자.

## I 머리말

### 1 때론 구별 짓기가 필요하다

지금이야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러지 과거 어릴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부족했었다. 당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여자애들도 여자용 흰색고무신[?]보다 남자용 검정고무신을 신은 여자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새 것을 사오면 자주 바뀌거나 잃어버리기가 일수였다. 그래서 친구들은 자신의 고무신에 자신 만의 표시를 나름 해두었다. 그런다고 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잣대기 하나로 표시해 두면 그 옆에 하나를 더해 두 개로 바꾸어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고, 구멍을 뚫어놓으면 옆에다 하나 더 뚫거나 잣대기 하나를 더 해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시비에 말려들기 싫어서 하얀 고무신을 샀다. 반에서 내 고무신만이 흰색 고무신이었다. 그래서 분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전교생 중에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닌 사람은 나와 연년생인 내 동생, 둘뿐이었기 때문이다. 흰 고무신은 신고 다니면 멋이 나는데 멋을 내려면 잘 닦아야 한다. 닦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닦는 데 필요한 세제(洗劑)가 오늘처럼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흰 고무신을 닦는 수고가 고무신 분실에 대한 염려와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닦는 편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물론 멋도 좀 부리고 말이다.

확실한 구별이 있어야만 시비(是非)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구별 짓기를 한다. ('구별 짓기'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타자화와 악마화로 연결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나와 경계를 지음으로써 그를 '나와는 다른 이'(우리와 다른 그들[저들])로 구분하는 것이다. 구별 짓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와 타자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거나 모호하게 됨으로서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비에 걸려들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시비도 사소한 것이 아닌 중차대(重大)한 것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황함과 더불어 큰 손실을 낳기도 한다. 과거 기독교의 공의회 등에서 이단(異端)이라고 정죄(모든 것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하였던 것도 일종의 구별 짓기에 해당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울타리 치기'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름의 공동체의 순수성(purity)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것이 출현했을 때,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니고 온[있는] 것[우리의 正體性]과는 전혀 다릅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만 했던 것이다.

복음과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文書)들이 존재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했다. 사도나 교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다양한 서로 다른 진술들이 존재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자료들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다. 자료들은 다양한 형태의 변질(變質)과 변용(變容)을 가져왔다. 작은 오류에서부터 중대한 오류까지 존재한 자료들이 나돌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구별 짓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구별 짓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경(正經, Can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경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정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정경은 바로 과거 사진[옛날 그 시절을 보여주는 黑白寫眞에 가깝다]과도 같다. 당시를 알 수 있는 과거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기록사진 말이다. 정경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기독교와 관련된 다른 무엇들에 관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해 받은 정경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해서 그 어떤 것이 기독교의 초기 정통과의 일치 여부를 어느 정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경 외의 것을 외경(外經, Apocrypha) 또는 위경(僞經, pseudepigrapha)이라는 이름으로 정경과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정경 이외의 문서들은 정경 밖의 것이고, 정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한 문서는 결코 정경이 아니며 정경이 될 수 없는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일반 문서에 지나지 않을 뿐이

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신앙의 전통이며,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확고한 신념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만을 가지고 다른 그 무엇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지도 모른다. 본 연구자의 노트북에는 많은 책들을 요약한 파일들이 들어 있다. 실재로 말이다. 시간이 지난 후 누군가가 폐기하기 위한 본 연구자의 노트북을 폐기장에서 발견하여 복구하여 보니, 그것에는 많은 자료들이 파기되지 않고 있었다. 영지주의에 관한 저서들을 요약한 파일도 있었고 댄 브라운(Dan Brown)의 『다빈치 코드』(The Da Vinci)에 관련된 저서들도 있었다. 이단에 관한 책들을 요약한 파일도 꽤 많이 들어있었다. 본 연구자의 파일을 발견한 사람은 본 연구자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파일의 대부분이 이단문서이고, 또 영지주의 문서여서 본 연구자를 영지주의자나 이단의 신봉자로 볼 수 있을까? 본 연구자가 이러한 파일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이들의 내용[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자료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본 연구자는 나름대로 개혁주의(改革主義)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본 연구자의 노트북의 문서의 존재만으로 본 연구자의 신학[신앙]적 입장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한 마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지주의 문서가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한 보따리 나왔다고 해서 본 연구자는 영지주의자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가 이러한 자료들을 읽고 파일로 남겨놓은 것은 다른 아닌 이들 저서들을 비판적(批判的)으로 바라보기 위한 자료로 삼기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본 연구자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한다. 누구의 자료를 제일 중요시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자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쓸 때에는 누구보다도 나의 아버지의 기억과 나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에 대한 다른 평가가 나왔을 때에는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아버지 형제간들에게, 할아버지 친구들에게, 할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식으로 평가의 범위를 넓혀 가면서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맞는 것인지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것보다 이들의 진술을 더 신뢰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 2 연구문제와 그 범위

본고는 다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잘못 맞춰진 예수 퍼즐에 대해 소고(小考)**”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올바른 퍼즐을 맞추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무엇이 있는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퍼즐을 맞추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더 나아가서 “성과 관련된 잘못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잘못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잘못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에서 나름 답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쿠이 보노(CUI BONO)**”, 즉 잘못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 3 연구전제와 그 한계

**신·구약성경 66권, 정경은 믿을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정경은 최소한 흑백사진과도 같다(고전13:12,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참조). 물론 칼라사진이면 더 좋겠고, 영상을 담은 기록물이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도로 흑백사진과도 같다. 흑백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빛이 바래고 얼룩과 곰팡이가 사진 한편에 있기도 하지만, 그 사진 밑에는 친절하게 나의 누군가가 메모도 해놓았다. 또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진을 소유하고 있는 자손에 의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속의 그분이 누구인지 언제 찍었는지, 사진

속의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진의 인물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성경 66권인 정경인 것이다. 여러 성경 비평가들이 신구약성경 66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정경에 대한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설득 차원의 필요성 때문에 비교라는 방법을 택한 것뿐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불교가 지니고 있는 경(經)들이라든가 이슬람교의 『꾸란』(Qur'an)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참고로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는 문맹[文盲]이라고 한다)<sup>1)</sup>. 본 연구자는 불교나 이슬람의 경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의 경전에 대한 신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정경에 대한 신뢰는 아무런 하자(瑕疵)가 없다는 점을 단지 강조하고 싶은 것뿐이다.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이 있기에.

심재관 선생과 최종덕 선생의 대화를 들어보면 불교의 경(經)<sup>2)</sup>이 붓다 사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完成]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종덕 ... 그러면 붓다가 행동했을 때도 문자가 없었다는 말이군요.

심재관 ... 없었다고 보는 거죠. 붓다 시절에 문자가 있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어요.

최종덕 ... 붓다가 살았던 왕국의 이야기, 가족사의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처럼 남아 있는데, 그것들이 다 문자로 전해 온 것이 아니란 말인가요?

심재관 ... 후대에 기록으로 정착된 것이거나, 후대에 창작된 것이라고 봐야지요. 수백 년이나 뒤에나요. ... **모든 경전 처음에 시작하는 ‘如是我聞’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시아문의 나(我)란 사실 아난다예요. 그만큼 아난다의 기억 재생은 불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해요. 거의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최종덕 ... 그만큼 결집에서 아난다의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자리를 만든 이는 가섭과 아난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모임인 1차 결집 자체는 역사적 사실인가요?

심재관 ... 1차 결집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기억을 통해 불교 경전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과정에 가섭과 아난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그럴듯해 보이죠.(심재관·최종덕, 2016: 342-345. “열두 번째 주제: 원형, 변용이 있어서 생존한다.” 참조, 강조는 본 연구자).

『꾸란』에 대해서는 나빌 쿠레쉬(Nabeel Qureshi, 참고로 쿠레쉬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가 자신의 책에서 쓴 내용을 옮겨보자.

무슬림은 코란의 글자 하나하나가 알라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sup>3)</sup>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코란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라는 더 깊은 층위에까지 영감이 깃든 책이다. ...

- 1) 다음도 참조하라. “F. E. 피럴스의 주장은 꾸란이 아랍어로 집대성된 것은 8-9세기 경, 즉 무함마드 사후 약 200년 뒤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말이 200년이지, 그 시간 동안에 꾸란은 단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암송되고 전승되다가 비로소 200년 후에 정식 아랍어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인데, 그 꾸란의 내용이 변개되지 않고 일점일획도 변경됨 없이 200년간을 유지하며 전승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황태연, 2017: 230).; “무슬림은 3대 칼리파 우스만이 편집한 꾸라이쉬어 꾸란을 꾸란의 정본으로 보고, 933년에 아랍어 문법에 맞게 꾸란을 개정하였는데, 오늘날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꾸란은 개정본이다.”(최종휴, 2016: 24).
- 2) 다음도 참조하라. “일반적으로 ‘경(經)’이라 불리는 불교의 경전은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84,000개의 법문(가르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 말이 약간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3,000개 이상의 경전이 존재한다고 한다.”고 한다(Life Science, 2017: 41).
- 3) 무함마드가 문맹이었다는 전통 교설은 무슬림들에게는 그가 전해준 성서(꾸란-역주)의 신적 기원을 입증해 주는 증거였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가 틀림없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Ernst, 2005: 43).

이맘(imam,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로 주로 모스크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과 교사들은 무함마드가 가브리엘에게서 듣고 서기관들에게 받아 적게 한 이래로 코란은 수정된 적 없이 완전무결하게 보존되고 전수 되어왔음을 수시로 선포한다. 물론 무함마드는 코란을 쓰는 데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신의 계시를 인류에게 전달한 사자였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코란의 정확한 형태를 보존했다(Qureshi, 2017: 58-59).<sup>4)</sup>

본고의 한계는 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엘리자베스 애보트(Elizabeth Abbott)의 저서인 『독신의 탄생』(A History of Celibacy, 2006)을 과도할 정도로 참고 또는 인용했다는 점에서 특정한 자료에 경도(傾倒)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 II 잘못 맞춰진 예수 퍼즐

퍼즐 맞추기에 관련해서 브라이언 D. 맥클러런(Brain D. McLaren)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퍼즐과 관련해서 와전한 밑그림[原本]의 상실의 결과는 비참하게 된다.

내 친구 스티브 초크(Steve Chalke)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한다. “상자 안에 조각그림 퍼즐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위에 다른 그림이 그려진 뚜껑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뚜껑에 그려진 다른 그림을 기준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려 하고 있다. 우리의 상상 속에 잘못된 그림을 심어놓은 탓에 어떤 조각들은 색깔이, 어떤 조각들은 모양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퍼즐 조각들이 실수로 그 상자에 들어왔다고 단정하고 옆으로 치워버리거나 퍼즐 조각을 전부 탁자에서 떨어뜨린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뚜껑에 그려진 그림에서 본 색깔과 모양을 찾는다.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맞지 않는 조각들은 점점 많아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옆으로 밀쳐둔다. 그러고는 가위와 색연필을 꺼내 남아 있는 조각들을 ‘정형’ 한다. 최선을 다해 상자 안에 있는 조각들을 뚜껑의 그림과 일치시키려 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실망한 나머지 퍼즐 조각과 상자,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퍼즐 맞추기를 아예 포기하는 이들도 있고, ‘정통’을 정하는 것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상자 뚜껑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들도 있다. 후자는 열정적으로 뚜껑을 옹호하며 감히 뚜껑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이단’ 또는 ‘배교자’라는 낙인을 찍는다(McLaren, 2010: 134-135)

### 1 퍼즐 맞추기의 전제조건

그렇다면 퍼즐 맞추기의 전제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올바른 원본[밑그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조각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잃어버린 조각[不足]이 있어도 안 될 것이며, 특히 다른 퍼즐조각이 섞여 있어서[不同]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조각을 맞추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전체적인 조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맞췄는데 완전한 조화를 보이지 않는다[不調和]면 잘못 맞춘 것이다.

#### 1) All바른 사진[原本, 밑그림]의 존재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진(원본 또는 밑그림)이 있어야 한다. 브라이언 D. 맥클러런(Brain D.

---

4) 이동주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모음이 있는 그리스어로 A.D. 약 100년에 기록된 요한복음보다 600년 후에 모음 없이 기록된 아랍어 꾸란어 Sura61:6의 ‘Ahmad’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파라클레토스’(παρακλητος)가 원래는 ‘페리클뤼토스’(περικλυτος)였다고 무지막직한 주장을 한다.”(이동주, 2017: 70).

McLaren)이 앞에서 언급한 퍼즐 관련 이야기의 문제점이 발생한 시발점은 바로 ALL바른 사진이 존재하지 않음에 있었다. “... 그런데 누군가 그 위에 다른 그림이 그려진 뚜껑을 올려놓았다”(McLaren, 2010: 13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고 맞춰야 할 그림 자체가 애당초에 다른 그림이라면 전혀 퍼즐 맞추기는 불가능의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방법[非正常的方法, 變形, 歪曲 등]들을 동원해야 한다. 설사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퍼즐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끝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은 채로 남겨둘 수밖에 없게 된다[不調和].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퍼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정상적인 결말에 대해서 거의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일부는 눈매를 과시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발견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혹[疑惑]으로만 끝나고 말 것이다), 비정상적인 결말을 이끈 당사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욱더 마음에 “알아차리면 어떠냐?” 전전공공할 수밖에 없다. 비록 밖으로는 매우 태연한 채로 살아가고 있겠지만 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원본이 있다. 바로 신구약성경이 바로 그 원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에 대한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본 때문에 우리는 퍼즐을 올바르게 맞출 수 있다. 실수[잘못된 성경해석과 잘못된 적용]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벽한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완전한 조각 존재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즐조각이 완전하여야 한다.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다른 퍼즐 조각이 들어와서는 더욱더 안 된다. 조각이 부족하면 완성된 그림을 만났을 수 없다. 특히 완성하고자 하는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없다[중요한 부분의 퍼즐 조각의 紛失]면 퍼즐을 완성해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퍼즐 조각은 필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퍼즐 조각이 있을 경우, 퍼즐을 완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완성된 그림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원본과는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다양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문서들이 나돌고 있다. 크레이그 A. 에반스(Craig A. Evans)의 구분에 따르면 잃어버린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구학과 회의론자들’로서 ‘축소된 예수’를 맞추려고 하는 이들로 로버트 펑크(Robert Funk)나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 등이 이러한 연구자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퍼즐로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이들은 ‘신학과 회의론자들’에 해당하는 자들로 ‘오해된 예수’를 맞추려고 하는 이들일 것이다. 로버트 프라이스(Robert Price)나 바트 D. 어만(Bart D. Ehrman) 같은 연구자들이 이에 해당한다(Evans, 2011: 31, 35)

부족한 조각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漏落)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로 구분하려고 한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에만 집착한다. ‘역사적 예수’를 찾는다고 소란이다. 신앙의 예수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Christianity)와 예수주의(Jesusanity)라는 개념을 구분하기도 한다. “Jesusanity는 예수가 1세기에 살았던 한 인간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가 정치면에서 급진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정의를 외쳤던 인물이며 신비한 지혜를 가르친 선생이었음을 역설하는 신학 사조(혹은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이 사조는 이런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자 메시아로 높이 받들어 올린 종교가 바로 Christianity라고 주장하면서, 이 Christianity 때문에 우리가 1세기에 살았던 인간 예수의 참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메시지를 뜻하는 헬라어 ‘그리스도’(Christos)라는 칭호를 예수께 붙이기를 꺼[리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Bock and

Wallace, 2012: 9, “일려두기”에서).

정경(正經, Canon) 밖의 문서들은 다른 퍼즐 조각들이다.<sup>5)</sup> ‘유다’(Judas)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성경속의 유다하고는 전혀 다른 유다에 대한 문서인 <유다복음>이 존재한다. 이름은 빌립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리고 그 뒤에 복음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빌립복음>도 빌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이 같다고 하지만 그저 외형적으로 이름만 같을 뿐이다. 나그함마디 문고(Nag Hammadi Library)에서 발견한 영지주의 문서들도 정경 밖의 문서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 價値觀이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정경의 범위 밖에 있는 전혀 다른 퍼즐을 가지고 예수 퍼즐을 맞추려고 한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 정경의 그림과 전혀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다른 퍼즐 조각으로 맞춘 그림이 맞다고 주장한다. 자기들이 맞춘 퍼즐이 원본에 더 가깝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맞춘 퍼즐에 원본의 권위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참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신구약성경 66권의 원본이 있다는 것이, 말 그대로 “신구약 성경[正經]은 정확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는 원본과 다른 어떤 조각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것을 지적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 3) 전체와의 조화 필요

맞춘 퍼즐 조각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느 하나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퍼즐 조각을 다 맞춘 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용(適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와의 조화의 문제다. 성경 전체와의 조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리처드 A. 버릿지(Richard A. Burridge)가 예수님에 대한 네 복음서의 저자들의 각기 다른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잘난 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지닌 관점이기도 하다). 리처드 A. 버릿지는 『복음서와 만나다: 예수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Four Gospels One Jesus?: A Symbolic Reading)에서 네 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아야[理解해야만] 한다고 적고 있다. 그는 먼저 소극적으로 피해야 할 것은 지적한다. 그런 후에 버릿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그림 위에 다른 그림을 포개어 보거나 조화롭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 그림을 하나로 만들거나 그림들의 최소공통부모를 찾아 환원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네 개의 복음서의 진술] 네 개의 초상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좋은 길은 초상들이 걸린 복도를 거닐며 각 초상을 찬찬히 살피는 것이다”(Burridge, 2017: 26).

### 4) 정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올바르게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성(性, Sex)과 관련해서 정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남성[본질적으로는 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대속을 완성하시기까지 전(全)생애 동안 독신(獨身)으로 살아가셨

---

5) 얼 도허티(Earl Doherty)는 자신이 선택한 “예수 퍼즐의 열두 조각”(2007a: 8-10)으로 퍼즐 맞추기를 하려고 한다. 이는 전혀 다른 퍼즐로 예수의 퍼즐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다. 이것이 성과 관련해서 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퍼즐의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6)</sup>

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		
구분	잘 맞춰진 퍼즐(正經)	잘못 맞춰진 퍼즐(正經 外 他文書)
신분	성을 초월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本質的)	하나님이 아닌, 성과 매우 밀접한 인간 예수(一般論)
성별(sex)	남성(成肉身 期間, public life)	여성?(Darrel W. Ray)
결혼 여부	독신(Craig A. Evans, Bart D. Ehrman, Robert H. Stein, Marie-France Etchegoin & Frederic Lenior, Mark L. Strauss, Erwin W. Lutzer)	결혼(Dan Brown, Olson Hyde, Simcha Jacobovici & Charles Pellegrino, 모르몬교, <마리아복음서(6:12)>, <빌립복음서>)
동성애 여부	동성애자 무관(Craig A. Evans, Lynn Picknett & Clive Prince 등)	동성애자(<마가의 비밀복음>, <빌립복음서>, Morton Smith, Theodore W. Jennings, Jr.)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성과 관련해서 정경의 범주를 넘어선 ‘다른 퍼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예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동성애자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보는 자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는 신학자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그는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주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가부장적 하나님’으로 이해한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호칭함으로써 여권의 신장을 꾀하고자 하는 이들의 주장에 유리한 해석의 자료로도 사용될[충분히 惡用]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럴 W. 레이(Darrel W. Ray)<sup>7)</sup>는 예수님의 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레이는 동정녀 탄생을 생물학적인

6) 드니 프리케르(Denis Fricke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편 복음서들은 그의 부모나 동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아내나 자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론 복음서들에 그런 언급이 없다고 해서 예수가 독신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단서들이 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는 예수가 그를 고자라 부르는 이들에게 대답한 흔적이 남아 있다. 고자라는 말은 독신생활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에서는 모욕이었다.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 된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 자신이 한 것으로 보이며, 모욕의 노골성도 그런 사실에 대한 방증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주님을 가리키는 데에 그런 모욕적인 호칭을 지어내는 관습은 없었기 때문이다.”(Fricker, 2007: 72). Fricker, Denis (2005). *Idees Recues: Jesus*. Paris: Cavalier Bleu. 최애리 역 (2007). 『예수: 신이 된 인간인가, 인간이 된 신인가』. 서울: 웅진씽크빅.

7) 대럴 W. 레이(Darrel W. Ray)는 참으로 이상한 상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여담이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음경에 음경뼈(baculum)라고 불리는 뼈가 들어 있는 동물이 많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음경뼈를 가진 동물이 많은 반면 인간에게는 그런 뼈가 없다



치녀생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예컨대 개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레이는 치녀생식을 생물학적인 안드로젠 무감성 증후군(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AIS)과 연결하여 예수님이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다. 레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한다.

“한편 예수가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로 간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10장에서 안드로젠 무감성 증후군을 다룬 부분 참조). 만약 그가 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곧 치녀생식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이다. 치녀생식이란 수컷의 정자로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 암컷이 혼자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치녀생식으로 태어난 인간이 있다면 그는 여성일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동정녀 출산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여성이었을 것이다.”(Ray, 2013: 67).

## 2 잘못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 성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학자들은 자신이 보기를 원하는 예수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예수의 모습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본다.(Aslan, 2014: 30).

정경을 통해 특히 신약성경의 네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결혼설(結婚說)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겐 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성적인 상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또 다른 일부의 연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로 그리기도 한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퍼즐을 잘못 맞추었기 때문이다. 원본에 전혀 존재하지도 않은 다른 조각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기 때문에 정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정경이 가르쳐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과 관련하여 잘못 맞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기혼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성애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퍼즐 맞추음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일부 연구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CUI BONO?).

### 1) 既婚者 耶穌: 뭘 뜯어내지 기혼자(?)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명에 전념하기 위해 예수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결혼과 가정을 포기했다.(Gnikla, 2005: 3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나 훗날 기독교를 전파한 일등 공신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둘 다 모두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의 경험도 없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Thompson, 2016: 93).

공생애 동안 독신으로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결혼한 기혼자 예수 그리스도로 둔갑하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과거와 오늘의 가톨릭 사제들의 독신 거부[獨身反對]와 상대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많지 않거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 (1) 사제들의 독신거부

과거 성혁명(性革命)의 거센 바람이 가톨릭교회 내에도 불어 들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으로

---

는 사실을 고대인들이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이 아담에게서 떼어간 것이 갈비뼈가 아니라 음경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남녀의 갈비뼈 숫자가 똑같기 때문이다.”(Ray, 2013: 135).

인해 성직자의 결혼 문제가 대두된 것일까? 본 연구자는 네 가지 관점에서 성직자 결혼 문제의 대두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a) 가장 먼저 성혁명과 같은 당시의 시대정신에 따른 독신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b)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性)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섹스관련 스캔들(sex-related scandal)의 문제 때문이며, (c) 또 다른 하나는 독신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성직자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리고 (d) 마지막으로 성직자의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질적으로 댄 브라운의 소설 『다 빈치 코드』(Da Vinci Code)는 무엇보다도 성직자의 결혼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브라운의 책에 근거하자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였는데, 어떻게 성직자에게만 독신을 강요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브라운의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주장은 영지주의 문서에 몇몇 구절에 대한 브라운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를 지지하는 것 같은 논문을 펴는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료는 주류 자료(主流資料)에서 벗어난 것들이며, 무엇보다도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a) 시대정신의 도전

엘리자베스 애보트(Elizabeth Abbott)의 글에서 우리는 금욕에 대한 부당성이 바로 성혁명(性革命 Sexual Revolution)이라는 사회분위기에서 발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분위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당시 일부 가톨릭 사제의 경우에는 바티칸 공의회에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 주리라고 믿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에는 유례없이 많은 사제와 수녀가 배출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품고 있던 신념은 낡은 교리와 맞지 않는 것이었다. 낡은 교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성직자의 금욕이었다. 성직자의 금욕을 까마득한 옛날부터 수많은 성직자가 받아들여 온 불문율이었다. 그들은 금욕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할지언정, 성직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금욕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전통에 맞서고 관행을 쓸어버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금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성직자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 제21차 로마 가톨릭 교회 공의회(Ecumenical Council of Roman Catholic Church), 일명 바티칸 2차 공의회(Vatican II)는 1962년 진보 성향의 교황 요한 23세(John XXIII)의 주도로 그리스도인의 대동단결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톨릭 성직자이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근본적 변화를 회피해 온 종교인들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개회를 기다렸다. 하지만 금욕을 지켰던 종교인, 혹은 금욕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에 젖어 있던 종교인들은 금욕을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방안이 성직자의 해묵은 고민을 해소하고, 평생 금욕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선포하기 어려운 정직한 남녀를 성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리라고 믿었다. 일부 사제는 자신감에 차서, 바티칸 공의회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 주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강행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Abbott, 2006: 618-620).

### (b) 독신으로 인한 성관련 스캔들 발생

독신을 강요하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적 스캔들의 문제로 인해 독신에 대한 회의가 더욱 더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애보트(E. Abbott)가 『독신의 탄생』(A History of Celibacy)을 쓴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제들의 성문제 사건들과 관계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독신에 대해 연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톨릭 신부들의 성적 스캔들이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독신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사건에 자극을 받아서였다. 첫 번째는

199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에 있는 마운트 캐설 고아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금욕을 다짐한 가톨릭 신부들이 성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었다. 신부들은 자기들 손에 맡겨진 가엾은 고아들을 손으로, 혀로, 성기로, 가죽 끈으로, 쇠사슬로 유린했다”(Abbott, 2006: 4)<sup>8)</sup>.

『은밀한 세계』(A Secret World: Sexuality and the Search for Celibacy)에서 A. W. 리처드 사이프(A. W. Richard Sipe)는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금욕을 지키지 않던 사제의 20%가 동성애를 시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훗날의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38% 내지는 42%로 거의 갑절로 늘어났다. 또 금욕을 준수하는 사제는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Abbott, 2006: 627 재인용) 리처드 사이프는 “줄잡아 40%의 미국 사제가 습관적으로 간음을 행하며, 이 중 20%는 한두 명의 여성 내지는 남성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밖에 남녀 어린이를 선호하는 소수의 신부도 있다.”고 밝혔다(Abbott, 2006: 635)<sup>9)·10)</sup>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독신을 강요하지만 성혁명 이후에 특히 제3의 길을 따르는 성직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거의 결혼과 진배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성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상당수 성직자는 제3의 길(The Third Way)을 따르고 있다. 많은 성직자가 1960년대 이후로 술집에 가서 여자를 포옹하고 애무했다. 성관계만 갖지 않을 뿐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이것이 제3의 길로 발전했다. 이것은 서로에게 호감을 품은 신부와 수녀가 은밀하게 만나 포옹과 애무를 나누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서도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예전보다는 더 알려졌다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신부와 수녀는 여전히 존재한다.(Abbott, 2006: 635-636).

### (c) 성직자 수의 감소

독신의 문제가 대두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강요된 금욕으로 인해서 많은 사제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데에 있다. “스스로 선택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금욕이 사제에게 깊은 사랑과 평온을 안겨주어 사목활동에 힘이 되고 신도와도 더욱 알찬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제는 없다. 하지만 강요된 금욕은 무력감과 슬픔, 회한과 소외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물론 고독을 벗 삼아 묵묵히 건디는 사제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제가 애인을 가정부나 친구인 것처럼 위장한다. 그래도 못 건디는 사람은 교회를 떠난다. 성직을 중도에서 그만둔 사람의 94%는 금욕에 대한 불만을 으뜸가는 이유로 꼽는다. 바티칸 2차

8)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의 리포터인 윌리엄 롭델(William Lobdell)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제들의 아동성추행이었다. 미국의 경우 “(1950-2002년 사이에 재직할 109,694 명의 신부들 중) 4천 명 이상의 사제들에게 아동성범죄 혐의가 씌어졌다고 한다. 가톨릭교회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섯 개 교구가 파산했다.”(Schnabel, 2013: 90) “고발당한 이들 중 3,300명은 이미 사망했고 그들이 저질렀다는 범죄행위도 이미 시효가 지나 버린 경우가 많았다. 384명의 신부들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어 25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다.”(Schnable, 2013: 90. 2장 5 번 각주).

9) “이 구절[고전7:8-9]을 비롯한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가톨릭교회는 성직자들의 금욕을 정당화했다. 그 결과 2천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아동성애가 자행되고, 성직자들이 정부(情婦)를 두고, 신부와 수녀가 사생아를 낳고, 교황의 사생아와 ‘조카들’ 여럿이 바티칸에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억압된 성은 묘한 데서 터져 나오는 성향이 있다. 수백 년 동안 가톨릭과 개신교 당국자들은 남색, 마녀, 동성애, 간통, 수단 등의 혐의로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을 처형했다.”(Ray, 2013: 219).

10) 수전 스콰이어의 글에 나온 내용이다. “예컨대 성매매를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한다. 정부와 동거하면 연간으로 세금을 매기며-평신도들은 이와 같은 결합을 하도 많이 봐서 성직자의 동거녀를 ‘신부 사모님’(Mrs. Priest), ‘주교 사모’(Mrs. Bishop)과 같이 성직자의 직함에 따라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다.-아이를 낳았을 때 요람세(cradle tax)를 내면 죄가 용서되었다”(Squire, 2009: 266).

공의회가 열린 이후로 10만여 명이 탈출대열에 합류했다. 이것은 현재 전(全)세계에서 활동하는 신부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2시간에 1명꼴로 성직을 등지게 하는 셈이다.”(Abbott, 2006: 632) “미국의 경우 42%의 사제가 서품을 받고 나서 25년 안에 성직을 떠난다. 60세 미만의 미국 사제 중 절반은 이미 성직의 길을 포기했다는 암울한 통계인 셈이다. 국민의 45.7%가 가톨릭 신자인 캐나다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신부와 수녀의 수가 4분의 1이나 줄었다. 비록 캐나다 가톨릭 신도의 84%라고 하는 압도적 다수가 기혼 사제의 목회를 인정했지만, 사제의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고 한다.(Abbott, 2006: 633).

#### (d) 성직자 결혼에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북미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성직자들의 선택적 금욕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바티칸 2차 공의회 이후 가톨릭 당국은 30여 년 동안 성직자의 금욕을 철칙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성직자 결혼의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위크』의 여론조사를 보면, 기혼사제에 대한 평신도의 지지율은 1974년 53%에서 1993년 71%로 대폭 늘어났다. 캐나다의 『매클린』(Maclean'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가톨릭 신도의 84%가 사제의 결혼을 받아들인다(Abbott, 2006: 627 재인용; Newsweek [August 13, 1993]; Maclean's [December 19, 1994] 참조).

#### (2) 영지주의 문서에 대한 집착으로 만들어진 기혼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독신으로 공생애 동안 살았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왜 다른 퍼즐을 가지고 와서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혼자 예수 그리스도로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일까? 성직자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른 퍼즐인 영지주의 문서들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는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E. 애보트(E. Abbott)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혁명의 시대적 분위기에 강요된 독신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결혼까지 한 사제들이 있었다. 그 정도로 성혁명의 시대적 분위기가 매우 강력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톨릭교회 내에서도 진보 성향의 교황 요한 23세(John XXIII)의 중심으로 “마지막에 금욕을 지켰던 종교인, 혹은 금욕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에 젖어 있던 종교인들은 금욕을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방안이 성직자의 해묵은 고민을 해소하고, 평생 금욕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선포하기 어려운 정직한 남녀를 성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리라고 믿었다.”고 한다(Abbott, 2006: 620). 그런데 진보적 성향의 교황인 요한 23세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후임 교황으로 추대된 교황 바오로 6세(Paul VI)는 선임 교황과 전혀 다른 노선으로 급격하게 선화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바오로 6세가 금욕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1) 예수님은 일평생 금욕을 지키셨고 금욕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2) 금욕은 사랑과 자비와 헌신을 나타내고 이끌어낸다. (3) “예수님께 사로 잡힌” 사제는 정수를 공유하게 되며, 그 핵심은 금욕이다. (4) 남들처럼 어엿한 가정을 꾸리기를 포기한 “하루하루가 죽음인” 사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5) 금욕은 사제가 번거로운 집안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준다. (6) 하느님이 주신 논리와 자유의지로 성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므로 금욕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7) 독신 종교인은 외롭기는커녕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가끔 외로울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홀로이셨음”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 (8) 사제는 “개탄스러운 타락”은 금욕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사제를 선발하는 과정이 부실해서 생긴 문제다. (9) 금욕은 비뚤어진 성격을 만들기는커녕 인격을 성숙시키고 심신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바오로 6세는 “가톨릭교회의 사제 금욕 규율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Abbott, 2006: 622; Pope Paul VI, Sacerdotalis Caelibatus. [June 24, 1967];

<http://listserv.american.edu/catholic/church/papal/paul.vi/sacerdot.caelibat> [August 27, 1997].

당시 교황 바오로 6세의 개인적 소신 중의 첫 번째 것이 바로 “(1) 예수님은 일평생 금욕을 지키셨고 금욕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였다. 아마도 독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독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 논리로, 독신을 거부하고 성직자들의 결혼의 정당화하는 방법의 첫 번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 절대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결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의 결혼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결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찾은 구절들에 해당하는 구절이 바로 영지주의 문서 등과 관련된 구절들이었을 것이다. 성직자들의 결혼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은 영지주의 문서들의 몇 안 되는 구절[외관적으로 결혼의 證據資料처럼 보이는]을 통해서 “야, 여 보라. 예수님이 독신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독신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독신을 고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진정한 영성은 독신이 아니라 결혼이다. 결혼의 영성(靈性)말이야!”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신성[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인(否認, 또는 拒否)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님이 아닌 단순한 인간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역사적 예수 탐구(歷史的耶穌探究)’라는 명목(名目) 하에서 인간 예수만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는 자연히 예수님은 한 인간 현자(人間賢者, guru)에 불과하게 되었다. 역사적 예수 탐구는 종교다원주의적 오늘날의 사회에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우리 인간의 삶과 같아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형도는 이러한 현상을 ‘일반론(一般論)’이라고 칭하고 있다.

“일반론이란 사람은 누구나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사회는 이런 욕구를 결혼이라는 제도적 형태로 수용한다는 논리이다.”(이형도, 2005: 53-54).

예수님을 신 즉 하나님님이 아닌 단순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이나 관습에 간히게 되고, 또 인간의 육체에 간히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론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연구자들은 역사적 인간 예수에만 병적으로 집착하였기 때문에 ‘일반론’을 극복하지 못한 형편이 되고 만 것이다. “예수와 마리아가 연인이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크레이그 에반스(Craig Evans)가 질문하면서 답하였던 것처럼, “예수와 마리아의 연애소설을 지지하는 듯한 고대의 자료는 정경이 아닌 빌립복음서와 마리아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Evans, 2011: 283).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의 동반자는 막달라의 마리아. [...]제자들보다 그녀를 더 [...]그녀의 [...]에 입맞춤[...]

“주님과 항상 함께 걸은 세 사람이 있다: 어머니, 누이와 그의 짝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인 막달레아 마리아

11) “And the companion of the Saviour is Mary Magdalene. But Christ loved her more than all the disciples and used to kiss her often on the mouth. The rest of the disciples were offended by it and expressed disapproval. They said to him Why do you love her more than all of us? The Saviour answered and said to them, Why do I not love you like her?”(The Gospel of Phillip, trans. by Wesley W. Isenberg; [http://wesley.nnu.edu/fileadmin/imported\\_site/biblical\\_studies/noncanon/gospels/gosphil.htm](http://wesley.nnu.edu/fileadmin/imported_site/biblical_studies/noncanon/gospels/gosphil.htm)).

이다. 그의 누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작은 각각 마리아이다.”<sup>12)</sup>(빌립복음서)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여, 우리는 당신이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구속자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것을 알고 있소. 그러니 당신이 알고 있는 구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을 말해주세요.’”<sup>13)</sup>(마리아복음서, 6:12)

참고로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자료의 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모르몬교와 관련된 것들이다. 모르몬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모르몬교는 정경의 내용과 다른 성경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 기혼자가 아닌 심지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일부다처제의 기혼남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이는 모르몬교의 일부다처제와 관련이 있다) “몰몬교는 가나의 결혼식이 예수 자신의 결혼식이었다고 주장한다. 오그던 크라우트는 ‘만약 그 결혼식이 예수와 아무 상관없었다면 왜 마리아가 그토록 부족한 포도주를 걱정했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도너반 조이스 역시 예수는 가나 결혼식의 신랑이었고 예수는 확실히 결혼한 남자였다고 주장한다.”(Phipps, 2006: 124).

역사적으로 일부일처제에서 일부다처제로 모르몬교들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등장은 모르몬 교인들에게 과학철학자 토마스 새뮤얼 쿤(Thomas Samuel Kuhn)이 저적하였던 것처럼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 일종의 Worldview shift)의 역할을 강하게 수행할 힘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어떤 사회이론이나 과학적 증거보다도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등장은 모르몬 교인들의 기존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다음 모르몬교도들의 사례(事例)에서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였는지 발견할 수 있다.

모르몬교는 남자는 아내를 많이 두면 둘수록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천당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모르몬 교회당 안에서 거행된 결혼은 죽음 이후까지 계속된다고 여겨졌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일부다처제는 혹은 더 흔히 쓰는 용어로 중혼(重婚)은 모르몬교도들이 유타 주에 정착했던 1852년부터 교주가 미국의 반중혼법에 승복한 해인 1890년까지 이 교파의 근본적인 교의였다.<sup>14)</sup> 최소한 40년간 일부일처제를 선호했던 여성들조차 교회가 그렇게 정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 아내의 말을 빌리면 “구원받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혼 제도를 옹호했다. 중혼을 받아들인 한 아내는 “만일 일부다처제가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구현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Yalom, 2012: 382 재인용; Jeffrey, 1976, 166 and 172 참조).

모르몬교도들이 일부일처제를 버리고 일부다처제인 중혼을 받아들이기 된 것은 바로 일부다처제가 신의

---

12) “There were three who always walked with the Lord: Mary, his mother, and his sister and Magdalene, the one who was his companion. His sister and his mother and his companion were each a Mary.”([http://wesley.nnu.edu/fileadmin/imported\\_site/biblical\\_studies/noncanon/gospels/gosphil.htm](http://wesley.nnu.edu/fileadmin/imported_site/biblical_studies/noncanon/gospels/gosphil.htm); The Gospel of Phillip, Translation by Wesley W. Isenberg)

13) Peter said to Mary, “Sister, we know that the Savior loved you more than all other women. Tell us the words of the Savior that you remember, the things which you know that we don’t because we haven’t heard them.”(<http://www.earlychristianwritings.com/text/gospelpmary2.html>; Gospel of Mary trans. by Andrew Bernhard).

14) “조지프 스미스(Joseph Smith, 모르몬교 창시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아내를 둘 수 있다고 허락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1890년에 모르몬교회 지도자 윌포드 우드러프(Welford Woodruff)는 역시 신의 계시를 들먹이며 모르몬교의 일부다처제 관행을 폐지했다. 유타 주가 합중국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딱 맞는 시기에 하느님이 그에게 계시를 내렸다는 것이다.”(Ray, 2013: 45).

뜻 즉, 그들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때로는 신의 계시[啓示]라는 수사[修辭]로 표현되어지곤 한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일부일처제로 많은 시간을 살아온 당사자인 여성들[有夫女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일부일처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일부다처제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결혼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바로 ‘일부다처제=신의 뜻=구원’이었던 것이다.<sup>15)</sup> 이처럼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강한 힘을 발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물론교 창시자는 올슨 하이드[아마도 Olson Hyde]의 성서 해석을 받아들인다. “예수는 실제로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여동생이 예수의 아내였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아내였다. 또한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갈릴리의 가나 축제는 예수 자신의 결혼식이었다[Young, 1876: 307]”(Phipps, 2006: 124).

모르몬교도들은 심지어 기독교의 성경(정통기독교 텍스트)을 변경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에 맞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이 결혼을 했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었다고 말이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결혼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결혼식이라고 해석하게 되었다. “가나의 혼인식=예수님 혼인식” “예수님 일부다처제=(모르몬)일부다처제=신의 뜻=구원”이라는 도식으로 모르몬 자신들의 교리[追求하는 바]에 맞게 해석을 통해 텍스트를 변경(變改)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다처제=모르몬교 정통교리”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새로운 자료[일조의 텍스트로 볼 수 있는]의 등장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다. 비교적 최근(벌써 10년이 지났다)에 있었던 『예수의 무덤』(The Jesus Family Tomb) 사례를 살펴보자. 『예수의 무덤』에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심차 자코보비치(Simcha Jacobovici)와 고생물학 박사인 찰스 펠리그리노(Charles Pellegrino) 그리고 <아바타>와 <타이타닉>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제임스 캐머런(James Cameron. 제임스 캐머런은 직접 이 책의 추천의 글을 쓰기도 했다[Jacobovici & Pellegrino, 2007: 6-17, “추천의 글” 참조])은 1980년 예루살렘의 탈피오트에서 발견된 1세기경 유대인 무덤을 추적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즉 예루살렘의 탈피오트에서 발견된 1세기경 유대인 무덤은 예수님과 그 가족의 무덤이라고 한다. 자코보비치와 펠리그리노는 예수님과 그의 가족의 무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책에서 비정통 기독교 텍스트인 『도마복음』, 『빌립행전』, 『마리아복음』을 물론이고, 통계학(Jacobovici & Pellegrino, 2007: 121-145, “4장. 통계적 확률과 ‘예수의 방정식’)과 DNA검사(Jacobovici & Pellegrino, 2007: 268-279, “13장. DNA이야기”) 그리고 녹청 동위원소 분석(Jacobovici & Pellegrino, 2007: 280-305, “14장. 과학수사 연구소의 예수”)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13장. DNA이야기(The DNA Story)”에서 다음과 같은 DNA분석이라는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들 저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러나 본 연구자가 보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다른 同名異人 예수다)께서 결혼하였다고 주장한다.

15) 메릴린 엘롬(Marilyn Yalom)은 “여성들 간의 우정”의 관계를 논증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형집행 현장에 있었던 여자들은 왜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와 막달라 마리아뿐이었는데, 그리고 왜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묘지로 예수의 시신을 찾으러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아내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예수가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테니 말이다. 우리가 앞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임신 기간 동안 나누었을 우정을 추측해 봤듯이, 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제자이자 아내였을지도 모르는 두 마리아 사이에도 우정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상상할 수 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두 여인이 함께 슬퍼하고 서로를 위로하려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Yalom and Brown, 2016: 38).

2005년 펠릭스 골루베프는 학자 스티브 판(Steve Pfann)과 법 고고학자 스티븐 콕스(Steven Cox)의 도움을 받아 유골함에서 인간의 잔존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으로부터 온타리오의 선더베이(Thunder Bay)에 있는 레이크헤드 대학교의 레이크헤드 DNA 연구소의 카니 매티슨(Carney Matheson) 박사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출하였다고 한다.

80-503: 유전표시 120: CCAGTAGGAT - 요셉의 아들, 예수

80-500: 유전표시 120: ACCACTAGG - '주인'으로 알려진 미리암네.(Jacobovici & Pellegrino, 2007: 275-276 참조).

이들은 DNA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미리암네는 고대 중동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 사이에는 혈연적인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부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의 무덤』은 앞에서 말한 사제 결혼 문제와 독신 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근거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저자인 자코보비치와 펠리그리노의 논리가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전개에 있어서 매우 비약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3) 예수 그리스도를 기혼자로 떠돌을 잘못 맞춘 이들에 대한 답변

먼저 크레이그 A. 에반스(Craig A. Evans)는 빌립복음서의 괄호([ ])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성적 이미지가 담긴 단어로 복원할 것을 제안하지만 다른 단어로 즉 성적 이미지가 없는 단어로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각각의 괄호는 분명하지 않은 본문인데 잃어버린 단어와 철자를 통해 복원하면 다음과 같이 읽힐 수 있다. ‘[구속자]의 동반자는 막달라의 마리아.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고][중중] 그녀의 [···]에 입맞춤[하곤 했다].’ 마지막의 복구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 일부 학자들은 ‘입’이나 ‘입술’로의 복원을 제안한다. 이런 제안이 가능하긴 하지만 ‘머리’나 ‘뺨’, ‘손’ 같은 단어도 가능하다.”(Evans, 2011: 284). 설상 괄호부분이 입맞춤으로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적인 결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 복원된 본문의 문맥은 낭만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시대에 입맞춤이란 존경을 의미했다. 예수가 잡히던 날 밤 유다가 예수에게 자연스럽게 입맞춤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빌립복음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점은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존중과 경의를 마리아에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마리아에게 가르쳤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는 결국 2세기 문서들의 특징인, 마리아가 예수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Evans, 2011: 284). 심지어 최근에 정통기독교에서 벗어난 바트 D. 어만(Bart D. Ehrman)에게서도 에반스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빌립복음서가 포함된 원고는 여러 군데 낱아서 단어들이 안 보이는 구멍이 몇 군데나 있다. 이 때문에 특정한 구절에 영향을 미쳤다: ‘[원고의 틈새]의 짝 마리아 막달레나 [틈새] 더 많이 [틈새] 제자 [틈새] 키스하고 [틈새] 그녀의 [틈새]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어딘가를 키스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딘지는 말하기 어렵다.’”(Ehrman, 2005: 187)는 점이다.

마리-프랑스 에슈고앵과 프레데릭 르누아르(Marie-France Etchegoin & Frederic Lenior)는, 『추적: 다빈치 코드의 진실과 거짓』(Code Da Vinci: L'enquete)에서 빌립복음서의 단어들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영지주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빌립복음서가 영지주의 문서이기에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에 성적 이미지와는 전혀 무관함을 지적하였다. “나그함마디 문서를 감정한 전문가들은 이 문서의 그노시스주의적인 특성을 지적하며 신과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 영적인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에 입문하는 진정한 개론서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혼인 관계는 예수가 진실한 제자들에게 불어넣는 ‘호흡’을 통해서 가능



하다고 한다. 빌립복음서에는 ‘포옹’과 ‘입맞춤’의 이미지를 사용한 대목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는 그리스도 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sup>16)</sup>(Etchegoin & Lenior, 2005: 152). 에스터 데 보에르(Esther de Boer) 또한 입맞춤은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이 ‘입맞춤’은 성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입을 맞추어 은총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다. ‘아담의 자식들은 죽는데도 수가 많다면, 완벽한 이의 자식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인가. 그들은 죽지 않고 거듭해서 새로이 태어난다. …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에서 양분을 얻는다. 약속은 입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곳에서 나왔고 입에서 양분을 얻어 완전해졌기 때문이다. 완벽한 이들은 입맞춤으로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다.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은총으로 잉태한다.’(『빌립복음』, 58:20-59:6).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 안의 은총에 의해 비옥해진다. 예수의 은총을 받아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다.”(Burstein, 2006: 93). 바트 D. 어만(Bart D. Ehrman)은 “텍스트는 아랍어가 아니라 콥트어로 쓰였고, ‘짝’(companion은 그리스어로 koinonos를 차용한 말이다)은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친구’나 ‘동업자’를 의미한다.”(Ehrman, 2005: 186)고 지적한 것을 볼 수 있다. 댄 버스틴과 영지주의의 전문가인 정통기독교와 반대에서 있는 연구자인 제임스 로빈슨과의 인터뷰의 내용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버스틴 Dan Burstein]** 뉴에이지를 언급했는데, 빌립복음에 나오는 ‘반려’라는 말이 일부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부부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사람이 키스를 했다고?

**[로빈슨 James Robinson]** 그렇지 않다.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부부였든지 부부가 아니었다든지 그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 ‘반려’라는 단어는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관계가 개입한 단어는 아니었다.<sup>17)</sup> 어찌면 흥미를 부여하고자 이야기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빌립복음 전문을 읽으면 저자가 성행위를 말 그대로 동물에 비유하고 동물적인 행위라고 멸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대 교회에서 입맞춤은 출산을 비유했다. 사실 이 입맞춤의 의미는 너무 부풀려졌다. 그것을 가리켜 평화의 입맞춤이라고도 했는데,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다 함께 악수를 하면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의

16) “한편 철학자이자 정통 신학자인 장 이브 르루(Jean-Yves Leloup) 박사-메나르 교수의 해석을 바탕으로 빌립보의 복음서를 보다 문학적으로 해석했다-역시 예수와 막달라 미리암과의 입맞춤의 의미는 영지주의 사상이나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입맞춤’은 히브리어로 ‘nashak’이라고 하는데 ‘함께 호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에서는 입맞춤의 형식으로 신이 내리는 호흡을 전달하고, 그 입맞춤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자 중의 성자인 ‘신방’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전수된다고 한다. 빌립보의 복음서의 중심 사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이 진정한 성인이 되어 신방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고, 입맞춤을 통해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서로 신앙을 전한다는 것이다. ‘완벽한 인간은 입맞춤을 통해 원숙해지고 그 입맞춤을 통해 다시 잉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를 끌어안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잉태하여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빌립보의 복음서, 59장)”(Etchegoin & Lenior, 2005: 152).

17) 반대 주장은 수전 해스킨스(Susan Haskins)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기도 한다. “빌립보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가까운 관계였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항상 주님과 함께 걷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누이, 그리고 그의 반려라 불린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의 어머니와 누이, 그의 반려는 모두 마리아였다.(이 구절은 이 책에서도 여러 저자에 의해 인용되는데, 저자에 따라 ‘그의 누이’(his sister)라고도 하고, ‘그녀의 자매’(her sister) 곧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라고도 한다. 영지주의 복음서의 불완전한 보존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역주) 그리고 구세주의 반려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하는 koinonos라는 그리스어는 흔히 ‘반려, 벗’이라고 옮겨지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동반자’ 혹은 ‘배우자’이다. 즉 이 여자와의 사이에 성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Burstein, 2006: 73) 그렇지만 “두 사람[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이 결혼을 했든지 아이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Burstein, 2006: 63) 수전 해스킨스의 주장은 성경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미였다.(Burstein, 2006: 176).

에반스는 마리아 복음서에서의 초점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연인이 아니라 제자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마리아가 예수의 연인이 아닌, 예수의 제자라는 자격과 관련된 것이다. 베드로는 마리아가 자신보다 예수의 말씀을 더 알고 있어 화가 났다. 여기서 ‘그녀를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의미를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리아가 온전한 지식을 소유했다는 영지주의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공동체의 가르침과 신학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마리아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 마리아복음서가 집필된 것으로 사랑 이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 어떤 로맨스가 있었다는 증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Evans, 2011: 286). 어만도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남자 사도들 간의 논쟁이 벌어진다: 사도들은 예수께 물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보다 왜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셨다. ‘왜 그녀처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여성에 대한 사랑이 남자들에 대한 사랑보다 큰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예수의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남자 사도들에 대한 사랑과는 그 유형이 다르다고 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차이를 말한다.”(Ehrman, 2005: 187). 마크 L. 스트라우스(Mark L. Strauss)는 “『다 빈치 코드』에 관한 FAQ”의 “11. 영지주의 복음서인 빌립복음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혼인관계를 밝히고 있는가?”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8)</sup> “· 빌립복음은 A.D. 3세기에 나온 것으로 신빙성을 뒷받침할 합리적 주장이 없다. · 마리아의 신원을 예수의 동료로 확인하는 것은 영적 존재는 남자와 여자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영지주의 세계관의 일부다.”(Strauss, in Strobel & Poole, 2006: 149).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셨는가? 결혼하지 않으셨음을 확신하다. 왜냐하면 어윈 루치의 말처럼 “장차 어린양의 신부와 결혼하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결혼하지 않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을 보낸 분은 ‘영지주의자들의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Lutzer, 2004: 105). 도울 김용욱 선생까지도 예수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결혼했던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 이적의 가나 혼인잔치나 예수 자신의 결혼식 설화가 변형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최소한 공생애를 통하여 독신이였다. 그리고 독신생활의 고귀함에 대해 긍정적 가치관을 내비쳤다”(김용욱, 2007: 424). 다석의 제자인 박영호 선생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석가는 혼인을 하였다

---

18) 마크 L. 스트라우스(Mark L. Strauss)는 “『다 빈치 코드』에 관한 FAQ”의 “4.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예수님의 결혼설이 허위임을 입증한다.

- 예수 당시 유대남자는 대개 결혼을 했지만, 예외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 쿰란의 사해공동체에 살았던 에세네파(고대 유대의 금욕, 신비주의의 한 파-역주) 사람들은 독신이였다.
  - 사도 바울은 독신이였다(고전7:7)
  - 유대교와 기독교 둘 다 독신과 독신주의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의 표시로 존중했다(고전7:32-33)
  - 대부분의 랍비가 결혼한 반면, 예수는 선지자의 역할을 좀 더 면밀히 수행하였다. 선지자들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종종 독신으로 지냈다.
  -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결혼하지 않았다.
- 모든 증거가 예수가 독신이였음을 가리킨다.
  - 예수는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했다(마8:20; 눅9:58)
  -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아내를 언급하지 않는다.
  - 예수와 그를 섬겼던 여자들 간에 성관계 또는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어떤 암시도 없다.
- 예수가 결혼했다는 초기의 또는 믿을 만한 역사적 증거는 한 조각도 없다.(Strobel & Poole, 2006: 145-146; Mark L. Strauss, “『다 빈치 코드』에 관한 FAQ”, 143-151. 참고).

가 혼인을 풀어버렸으니 해혼[解婚]한 것이다. 예수는 혼인을 안 하고 혼인을 멀리하였으니 원혼[遠婚]이라고 하겠다.”(박영호, 2007: 299).

로버트 H. 스타인(Robert H. Ste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약성경에 예수의 아내에 대한 언급과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견해에 대한 강력한(비록 결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반증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룹 사람들은 결혼을 피하고 독신을 옹호했다. 에세네파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Josephus, War 2.8.3; Ant. 18.1.5; Pliny the Elder, Natural History 5.15.73; Eusebius, Preparation for the Gospel 8.11에서의 Philo], 애굽 저지대에 살던 금욕주의자 그룹인 테라퓨타이(Therapeutae)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특이한 경우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실제로 가장 특이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염려는 기록되어 있는데도(요19:27) 아내에 대한 염려의 흔적은 전혀 없다는 것도 강력한 반증이 된다. 예수님이 결혼했었다는 증거가 사실상 전혀 없다”(Stein, 2001: 98-99).

#### (4)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유무와 관계 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독신이나 결혼이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은사에 따른 선택의 문제

모튼 S. 에슬린(Morton S. Eslin)이라는 학자의 지적에 따르면,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을 금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둘러싼 세상이 그리스도교를 금욕적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Abbott, 2006: 84-85 재인용). 독신이나 결혼이냐는 개인의 은사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독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결혼할 것이냐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나 시대에 따라서 ‘독신’만을 때로는 최고의 가치로, 때로는 ‘결혼’만 최고의 가치로 이즘화(ismization)시킴으로써 독신을 강압적으로 장려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결혼의 가치를 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Abbott, 2006; Bologene, 2006 참조). 가톨릭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강요된 독신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유부남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신들의 독신 서약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없을 때에는 아무런 군소리(중국어 廢話)도 없이 그 조직으로부터 벗어나 결혼을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성직자의 결혼이 대두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성직자 수의 감소’로 인해 가톨릭 당국이 성직자의 결혼을 인정한다면 몰라도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지만 말이다. 혹시 성직자들의 결혼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성직자의 결혼의 인정이 예수님의 결혼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장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독신의 강요가 순수한 종교적 원인[動機]에 의해서만 존재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로빈 레인 폭스(Robin Lane Fox)가 지적하였듯이, “순결을 미화하고 재혼을 탐탁히 않게 여김으로써 교회는 유산상속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Abbott, 2006: 122). 순수하게 신앙과는 관계없이 경제적이 원인에 의해서 독신이 강조되기도 했었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자발적인 독신은 때로는 독신자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또 수녀원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었다. 여자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수녀원에 들어가는 길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바깥세상에서는 학식 있는 여자가 드물었을 뿐더러 공부를 많이 한 여자는 별종이라며 오히려 따돌림을 받았지만, 수녀원 안에서는 문서실이나 도서관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었으며 학식이 깊은 신학자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었다. 보수적 성직자는 수녀의 학문 연구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의식 있는 고해 신부들은 똑똑한 수녀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수녀원은 고달프고 피로운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같은 수녀들과 따뜻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합법적인 피신처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Abbott, 2006: 224-225).

독신에 대한 평가와 결혼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독신과 결혼이 시대에 따라 이증화되어 강조되었음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 클로드 블로뉴(Jean Claude Bologene)의 『독신의 수난사』(Histoire du Celibat et des Celibataire)에 앞면에 그림들이 실려 있는데 그 그림들에는 상반되는 내용이 실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콘라드 데 히르사우(Conrad de Hirsau)가 그린 『처녀의 거울』(1190년 본 라인국립박물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그린 12세기 미세화)의 그림을 보면, 처녀들이 강조되어 있다. 즉 독신이 결혼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고전적 해석에 따르면 뿌린 것의 100배를 받는 자는 바로 순결을 지킨 처녀들이다. 과부들은 60배를 거두며, 유부녀들은 30배를 거두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ologene, 2006)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쳤던 당사자인 예수님은 “... 더 이상의 설명을 삼갔지만 중세에는 이것을 사회적 신분 구별로 보았을 것이다. 즉 순결을 지킨 사람은 100배로 보상받을 것이요, 금욕하는 자(과부, 사제, 성 관계를 삼기는 부부)는 60배로 보상받을 것이며, 결혼한 자는 30배로 보상받을 것이다. 아무리 결혼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상대적일 뿐이었던 것이다.”(Bologene, 2006: 82) 이에 반하여 19세기 착색 판화인 <고리문답 벽화>(라 본느 프레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내가 없는 독신자보다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결혼한 남자는 아내와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신에게 영혼이 받쳐진 반면에, 아내가 없는 독신자는 홀로 죽어갈 뿐 아니라, 그 영혼도 악마가 가져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은 독신보다는 결혼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Bologene, 2006). 이처럼 당시 시대가 무엇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 독신과 결혼은 이증화되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sup>19)</sup>

19)

표: 성직자의 독신

	서방 그리스도교				동방 그리스도교							
	상위성품		하위성품		주교		사제·부제·차부제					
	성품이전에 결혼	독신	성품이전에 결혼	독신	성품이전에 결혼	독신	성품이전에 결혼	독신				
-4세기	결혼유효	결혼금지 결혼을 할 경우 유효	결혼유효	처녀와 결혼 허용	결혼 유효	결혼 허용?	결혼유효	결혼 허용				
4세기	결혼유효 금욕생활 아내를 수도원으로		예외:차부제 (금욕)			지방관습에 따라		결혼 금지	결혼 유효 성무집행 시 일시적 금욕	결혼 금지	사제결혼 금지	
390				드문 경우	결혼 유효 예외: 차부제		차부제 결혼 무효	금욕, 아내를 수도원으로			결혼 금지	결혼금지
692												
755	상동		폐지. 결혼이 가능했던 부제 예외									

자료: Bologene(2006: 638).

독신과 결혼이 얼마나 시대에 따라 이증화 되었는지는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직자의 결혼이 매우 유동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스 쿡(Hans Küng)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가령 독신제도에 대한 최칙인 『사제의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과 같은 경우, 이것은 사제들이 강제적으로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증명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도록 복음의 가장 귀한 진리를 역지로 징발한 것이었다. 이 문서 역시 기본적인 모순을 제거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복음에 의하면 완전히 자

## 2) 同性愛者 耶蘇: 이젠 또 무슨 소리 동성애자(?)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 (1) 외형적으로 매우 관대해진 사회

동성애 문제는 인권 특히 '사회적 소수자'(social minority) 문제가 결부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한국은 WCC 부산총회(2013년)에서 회원들의 동성애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함으로 떠들썩거렸고, 또 영화감독 김조광수(48세)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세) 공개적인 동성결혼식(<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31211085116189>, 참조 “동성 공개 결혼’ 김조광수 커플.”)을 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들의 동성애결혼 혼인신고서 제출에 대한 찬반이 뉴스의 지면을 차지하였었다(<http://www.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7> 참조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김조광수의 동성결혼 혼인신고 반대한다”). 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나) 출신이면서 예수회 소속의 현(現) 교황인 프란치스코 1세(Jorge Mario Bergoglio, Francis I)는 동성애에 대해서 과거 교황들과 비교해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해지고(<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30729185251088&did=1179m>) 고 있다.

그 누구도 개인의 특별한 사생활을 물리적으로 간섭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창조했다면 지금 그 자유인을 간섭하려는 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교황 프란치스코 어록 303> 중에서; “2013 페이스북 최고의 인물, 교황 프란치스코”, <뉴스엔조이> (2013.12.11);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777>).

#### (a) 그래도 여론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대함과 달리 정통기독교의 관점에서 동성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사실 오늘날 사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동성애혐오증(homophobia)<sup>20</sup>이라는 말을 즐겨 붙이는 추세다. 관용(寬容, tolerance, 톨레랑스)이 결핍된 사람처럼 취급당하기도 한다.<sup>21</sup> 그렇지만 이는 포비아(嫌惡症, phobia)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사회의 일반적 사회풍토에 지나지 않는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포비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죄로 단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비아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22</sup> 동성애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죄라고 말하는 것과 삶속에서 이들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

발적 선택의 문제였던 독신 문제를 로마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이 똑같은 복음을 읽으면서도 그만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적인 법으로 왜곡시켰다는 모순이다.(Küng), 2013: 244).

20) 참고로 레이(Darrel W. Ray)의 동성애혐오증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소년들은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호모라고 부르며 서로를 놀린다. ‘진짜 남자는 자위행위 같은 거 안 해’ 자위행위를 동성애와 결부시키는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소년들은 자신의 성충동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수치심으로 동성애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다. 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호모포비아가 사실은 자신의 자위행위에 대한 강렬한 수치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믿는다.”(Ray, 2013: 290).

21) 데럴 윙 슈와 데이빗 슈(Derald Wing Sue and David Sue)는 다음을 지적한다. “GLBT 집단들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동성애는 비도덕적이고,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며, 그들의 종교에서는 이와 같은 ‘생활양식’이 죄악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Sue and Sue, 2011: 382).

22) 어윈 W. 루치의 책에는 다음 사례를 만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한 복음주의 목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교를 했다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4주의 수감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http://www.akegreen.org/en-3-right/en-3-1-presentation.htm>; Lutzer, 2011: 125 참조)..

것을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것을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동성애자들에 처우에 대한 비인간적인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사실 이는 기독교비평가들의 기독교비판의 단골메뉴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교훈 삼아서 오늘날 어떻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더 심사숙고해야만할 것이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호모포비아’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경(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한다는 것을 동성애혐오증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증의 의미도 모르는 이들의 남용사례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sup>23)</sup>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MBC TV드라마 <대장금(大長今)> (총 56부작, 2003.09.15-2004.03.30 종영)에 나온 명대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紅柿)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인데 …”(http://gall.dcinside.com/list.php?id=drama&no=349323).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해서 그냥 죄다’고 하는 것뿐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 .” 정통기독교의 비평가들은 본 연구자가 제시한 문장을 이유로 “뗏이 예수님이 직접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증거를 대시요”라고 할 줄 모른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구절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 볼 때에 동성애를 죄로 다루고 있다는 의미다. 비록 동성애를 지지하는 비평가들이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에 대한 구절들을 부정하더라도 말이다. 정통기독교 공동체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그 공동체에 속한 본 연구자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랑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 (b) 집착하는 이유

기독교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옹호자들은 성경이나 다른 비정통기독교 텍스트들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의 정당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들은 동성애자도 기독교공동체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정당화해줄 근거를 신·구약성경 66에서 찾으려고 시도 했었다.<sup>24)</sup> 그들

23) 동성애혐오범죄에 대한 사례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Stephen V. Sprinkle (2011). *Unfinished Lives: Reviving the Memories of LGBTQ Hate Crimes Victims*. Wipf and Stock Publishers. 황용연 역 (2013). 『누가 무지개 깃발을 짓밟는가: 성소수자 혐오 범죄로 죽임을 당한 이들을 기억하며』. 서울: 알마. 참고로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스프링클(Stephen V. Sprinke) 목사는 동성애자(Sprinkle, 2013: 39)이면서 텍사스에 있는 브라이트 신학대학교(Brite Divinity School) 교수라는 점에서 그의 동성애에 대한 근본적 생각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이 책의 번역자인 황용연은 “웁긴이의 말”에서 “역사가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책에 등장하는 미국 기독교의 형태는 물론이고, 미국을 뺀 정도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의 최대 주주 노릇을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는 게 부끄러웠다. 이 책을 읽는 기독교 독자들은 <레위기>, <로마서> 등의 『성서』 구절을 예로 들어가며 성소수자를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작태는 물론이거니와, 조금 부드러운 입장이라는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한다”는 투의 이야기들도 모두 성소수자 혐오일 뿐이며, 그것을 재생산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내 생각에는 “성소수자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Sprinke, 2013: 550-551, 황용연, “웁긴이의 말”, 549-551 참조)라 하는데 이 또한 반쪽의 진실만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주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4) 최근에 이러한 주장은 구미정(2010; 256-273, 특히 ‘죽이는’ 구절, ‘살리는’ 해석[262-266]) 참조. 구미정 교수는 신학자이면서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서의 맥락상 남성 동성애가 금지되는 까닭은 그것이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고대인의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Ibid, 2013: 266-267)고 지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한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생물학적 번식’에 있는 것일까?

은 정통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 구절로 이해하는 성구들을 동성애 반대와는 전혀 무관한 구절로 해석하였다. 그리고는 그들은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이것 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해석이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진 해석이어서 스스로 그것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구절을 찾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그들은 신·구약성경에서 벗어나 영지주의와 같은 다른 문서들에 전념하게 된 것이다. 아마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 문서에 눈을 돌렸을 때 동성애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을 찾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 근거 구절을 더 확실한 근거자료로 택하기 위해서 영지주의 문서들에 대해서 정경적인 권위까지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 인정하는 구절로 해석되어 지는 이들 영지주의 문서도 성경 못지않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지만 약발이 더 먹혀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성경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이들 문서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정통기독교의 정경에만] 특권을 부여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경 안이나 밖에 있는 모든 복음서가 동일한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식의 논리로 말이다(Evans, 2011: 76-77).

성직자의 동성애 비율이 높다고 지적한다. 존 스폰그(John S. Spong) 전(前) 감독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비율적으로 교회 내 성직자들의 동성애 비율이 생각보다 더 높다고 한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성경과 영지주의 문서와 같은 다른 기타 텍스트를 통해서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려는 이들 동성애 지지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열심일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성직자의 동성애 비율이 높다는 스폰그의 지적이다.

교회는 동성애가 정상이 아닌 악이라고 노골적으로 정죄하는데도, 동성애를 가장 가열차게 정죄하는 교회 자체가 그 안수 받은 성직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동성애자 비율을 갖고 있다. 정말이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증오심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그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제의(祭衣) 속에 숨어 있는 동성애자 자신들에게서 표출되고 있다(Spong, 2005: 73).

참고로 “링크업을 세운 톰 이코너머스(Tom Ecomomus) 신부에 따르면, 가톨릭 신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의 90%는 남자아이의 성희롱과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 신부의 6%가 아이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변태성욕자라는 리처드 사이프(Richard Sipe)의 주장과도 맞아 떨어진다”(Abbott, 2006: 639; “The Catholic Church: Wages of Sin,” *Economist* [August 30, 1997] 참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성직자 가운데 동성애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 엘리자베스 애보트의 책에서 이에 대한 간접적인 단서가 될 만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독신에 대한 강요의 반작용. 즉 독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인 일종의 “독신의 영성화”가 바로 동성애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럼으로써 동성애 비율이 성직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애보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어쩌다가 금욕을 고수하는 수사가 별종으로 취급받을 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던 서방 수도원에서는 동성애도 기승을 부렸다(Abbott, 2006: 168).

그러나 가장 큰 유혹은 수도사끼리 맺은 육체관계였다. 교부들은 고독한 생활을 통해서 쓸데없는 접촉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동성애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교리를 어긴 수도사라도 회개를

하면 원로 은수사와의 상담을 거쳐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Abbott, 2006: 143-144).

개리 윌스(Gary Wills)는 자신의 책, 『교황의 죄』(Papal Sin)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독신에 대한 반대로 떠나간 사제의 자리를 동성애자 사제들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가톨릭 안에 동성애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사제직을 떠난 사람들 태반이 결혼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윌리 서턴(Willie Sutton)이 말한 대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여자들이 있는 자리이다. 신학교와 사제관 같은 세계에서 많은 남성 동성애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곳은 온통 남자들로 둘러싸인 곳이다. 그런 곳에서는 유혹이나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유는 그곳 이성애자들의 경우는 격리된 채 살기에 여성과 접촉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반면에 의혹의 눈초리는 더욱 따갑게 받곤 하기 때문이다. 군대나 여학생이 없는 학교, 소년단 등 오로지 남성들끼리만 어울리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런 환경은 일부 남성 동성애자를 최우선적으로 끌어당기는 경향까지 있다”(Wills, 2005: 305-306). “『내셔널 카톨릭 리포터』 편집인 토머스 폭스(Thomas Fox)가 직접 실시한 인터뷰들과 가톨릭 문화에 대한 보도를 통해 내린 결론이 그렇듯이, ‘몇몇 경우들을 보면 신학생들 내부에서 남성 동성애 분위기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 이성애자 신학생들이 불편을 느낀 나머지 결국에는 떠나 버린 경우도 있었다.’[Fox, 1995: 177] 남성동성애자 자신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1백1명의 남성 동성애자 사제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1960년 이전에 서품 받은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신학교에서 51%가 남성 동성애자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1981년 이후에 서품 받은 이들은 그들 신학교의 경우 70%가 남성 동성애자였다고 말하고 있다.[Wolf, ed., 1989: 60]”(Wills, 2005: 309).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의 자료다.

『캔자스 시티 스타』(Kansas City Star)가 실시한 광범위한 조사에서 AIDS로 사망한 사제들이 알려진 것만 최소 4백 명으로, 어쩌면 그 2배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 비해 비율이 4배에서 8배까지 높은 수치이다.<sup>25)</sup>(Wills, 2005: 307)

한 조사에 따르면 1983년 사이에 평균 일 주일에 한 번꼴로 소송이 터져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친근상 간처럼 전통적으로 잘 보도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범죄에 해당했음에도 그러했다.[Sipe, 1990: 162] 이 나라 1백88개 교구들 가운데 소아성애도착증 문제[로리타 콤플렉스]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교구는 단 한 곳도 없다. 1994년 9월에는 60명의 사제 또는 수사가 아동학대죄로 수감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Sipe, 1995: 26](Wills, 2005: 291)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아동 성추행으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93%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는데, 학대한 사람 절반이 사제나 수사였다고 말했다.<sup>26)</sup> 이 같은 ‘희귀성 소아성애도착증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이 체포되어 구속되지 않을 경우 “평생 동안 평균 2백65차례 청소년과 성적 만남을 가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Berry, 1992: 159](Wills, 2005: 292)

## (2) 영지주의 문서에 대한 집착으로 만들어진 동성애자 예수 그리스도

25) 주디 L. 토머스(Judy L. Thomas)가 Kansas City Star. (January 2001) 연재한 기획기사. 8백 명의 사제가 응답한 여론조사에서, 3분의 2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사망한 사제를 최소한 한 사람 알고 있으며, 3분의 1은 현재 그 병을 안고 살고 있는 사제를 최소한 한 사람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26) Jack Taylor, “연구 결과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자들, 학대 반복에 대한 책임을 가톨릭 교회에 돌리곤 한다”. Agence France Presse. (January 6, 1995). 이 조사는 애들레이드 대학 프리다 브리그스(Freda Briggs) 교수와 러셀 호킨스(Russell Hawkins)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동성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영지주의 문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마가의 비밀복음』(A Secret Gospel of Mark)과 『빌립 복음서』(Gospel of Philip)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정통기독교 텍스트가 아닌 비정통 기독교 텍스트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구절로 인용되어지는 경우가 바로 모턴 스미스(Morton Smith)의 연구일 것이다. 미국의 성서학자인 스미스는 1958년 사해 근처 마르 사바 수도원에서 약 2세기 때 존재하였던 카포크레티안 교파의 문서 일부를 발견하였는데 이 교파는 ‘음탕한’ 행위로 인해 이단으로 정죄 받았다고 한다. 이 교파는 특별히 『마가의 비밀복음』(A Secret Gospel of Mark)으로 알려진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서에는 예수의 부활과 남자 제자들과의 친밀함이 묘사되어 있다고 한다. 다음은 카포크레티안 교파가 지녔다는 『마가의 비밀복음』에 나타난 내용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이 비기독교 텍스트를 자신들의 동성애 옹호의 근거로 인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자료가 자신들의 동성애 옹호를 정당화시키는 데 너무나도 유익한 근거 구절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영지주의를 이단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독교들(Other christianities)의 하나로 이해하게 된다면, 동성애를 전혀 죄가 될 것이 없게 된다.

… 예수를 사랑했던 젊은 제자들이 예수를 우러러보며 그가 자신들과 함께 해 주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무덤을 떠나 부자 청년의 집으로 갔다. 여섯 날이 지나고 예수는 그에게 저녁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 청년은 벗은 몸에 잠옷을 걸치고 예수에게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예수와 함께 지냈다. 예수는 천국의 비밀을 그에게 전했다(Smith, 1973: 447; Phipps, 2006: 135 재인용; Jennings, 2011: 192-193 참조)<sup>27)·28)</sup>

만약에 『빌립 복음서』(Gospel of Philip)에 나오는 다음 구절도 동성애 옹호자들에게는 동성애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27) And the youth, looking intently at him, loved him and started begging him to let him remain with him. And going out of the tomb, they went into the house of the youth, for he was rich. And after six days Jesus gave him an order and, at evening, the young man came to him wearing nothing but a linen cloth. And he stayed with him for the night, because Jesus taught him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n when he left he went back to the other side of the Jordan.(Shawn Eyer, “The Strange Case of the Secret Gospel According to Mark: How Morton Smith’s Discovery of a Lost Letter by Clement of Alexandria Scandalized Biblical Scholarship” ([http://www.gnosis.org/library/secm\\_commentary.htm](http://www.gnosis.org/library/secm_commentary.htm)).

28) 참고로 바트 E. 어만(Bart E. Ehrman)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더욱 길게 인용하고 있다. “다음은 클레멘스가 인용하고 있는 『비밀의 마가복음서』에 들어 있는 문제의 두 구절이다. 클레멘스에 따르면 그 첫 번째 구절은 신약의 마가복음 10장 34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베다니로 왔다. 그리고 남동생을 잃은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예수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녀를 나무랐다. 화가 난 예수는 그녀를 데리고 그녀의 남동생이 묻힌 무덤이 있는 동산으로 가버렸다. 바로 그때 무덤에서 큰 소리가 들려 왔다. 예수는 다가가서 그 무덤의 입구에 놓여 있던 돌을 치우고 즉시 그 젊은 남자가 누워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젊은 남자는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지내길 간청했다. 무덤에서 나온 후 그들은 가정 형편이 넉넉한 그 젊은 남자의 집으로 갔다. 6일 후 예수는 그에게 하나의 임무를 맡겼다. 저녁이 되자 그 젊은 남자는 발가벗은 몸을 속살이 흰히 다 비치는 얇은 가운을 걸치고 나타났다. 그날 밤을 그와 함께 보내게 되는 예수는 그에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다시 요단강 전편으로 건너갔다.”(Ehrman, 2008: 165-166).

… [구세주]의 친구[는] 말달라 마리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서는 모든] 제자들보다도 그녀를 더 [사랑하셨으며], 그녀의 [입에 자주] 키스하시곤 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였다 …]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은 우리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왜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셨다.(Pagels, 2006: 18)

여기서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보다도 그녀를 더 사랑하셨으며”이라고 할 때 이 구절은 정통기독교 비판가들로부터 예수님과 말달라 마리아와의 결혼[性的結合]의 근거로 사용되어지곤 하는 구절이다. 물론 성적 결합을 강조하는 자들은 “used to kiss her often on the mouth”라는 구절을 과장확대 해석해서 그와 같은 결론을 얻지만 말이다. “Christ loved her more than all the disciples … They said to him Why do you love her more than all of us? …”를 제닝스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게이적 해석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동성애의 근거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제닝스는 게이적 해석에 따라 “예수께서 … 그를 사랑하여”(사랑의 시선, 마10:17-22 참조)라는 구절도 동성애적으로 해석[Gay Reading]하였기 때문이다(Jennings, 2011: 194).<sup>29)</sup> 다시 말해 제닝스의 게이적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적으로 제자들도 사랑했지만[同性愛 相對로] 마리아를 성적으로 더 사랑[異性愛 相對로]했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애자(兩性愛者)가 되고 만다.

참고로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게이적 해석(Gay Reading)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정경의 내용에 대해]신학 분야에서 친동성애적 견지를 지니고 있는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재해석(再解釋, reinterpretation), 재고(再考, rethinking), 재(再)읽기(rereading)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정통적인 해석을 부정하는 방법을 쓴다.<sup>30)</sup> 대표적인 예가 롯과 소돔 사건<sup>31)</sup>에 대한 범죄가 동성

29) 김영봉 목사님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잘못된 비약적 결론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빌립복음서』 원본 32절)이라는 말이 영어로 his lov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말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열 두 제자 중 한 사람 즉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요13:23; 19:26; 20:2; 21:7, 20)라고 부릅니다. 댄 브라운과 같은 논리로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동성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비약할 수 있습니다.”(김영봉, 2006: 48-49).

30)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도 있다. 예수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복음서를 연구한 로즈메리 류우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예수의 삶은 특별한 성생활의 양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독신으로 지내건 결혼을 하건, 이성애이건 동성애이건 기독교인을 위해 정해진 성생활이란 없다. 오히려 다양한 성적 표현을 포함한다. 성에 관한 아무런 조건도 정해져 있지 않다. 아무것도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복음서는 성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 인간의 성은 어둠의 죄악도 아니고 완성의 길도 아니다.”(Ruether, 1978: 135; Phipps, 2006: 352-354 재인용). Ruether, Rosemary (1978, May 29). “The Sexuality of Jesus,” *Christianity and Crisis*. 38. 135 참조.

31) 신득일 교수는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를 분류하기를 동성애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견해와 환대거부와 관련 있다는 견해 그리고 동성애와 더불어 환대거부와 관련성이 함께 인정하는 제3의 견해로 분류한다. 신득일에 의하면 소돔의 죄를 동성애에 관련해서 보는 이로는 Clement of Alexandria, Augustine, E. A. Speiser, G. von Rad, W. G. Plant, G. I. Bashen, S. John and Paul D. Feinberg, G. J. Wenham, V. P. Hamilton, D. J. Wold, K. A. Matthews 등이다. 그리고 소돔의 죄를 환대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이들은 D. S. Bailey, J. J. McNeill, John Boswell, J. C. McCann, J. E. Miller [James Brownson도 포함된다] 등이다. 소돔의 죄를 동성애와 함께 환대거부로 보는 견해로는 Keil & Delitzsch, C. L. Seow, R. A. J. Gagnon, L. Ruppert, W. M. Swartley, N. M. Sarna, W. W. Field 등을 있다고 한다.(신득일, 2008: 7-36 참조; 김진규, 2017: 99: 11번 각주 재인용). B. N. 피터슨(B. N. Peterson)은 창세기 19장에 강간과 환대거부라는 죄악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더 넓은 율법서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소돔의 죄는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않은 모습과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을 거부하는 것과 함께 성행위의 저질화를

애가 아니었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슬람교도들도 동성애를 지적할 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de Larocque, 2007: 119)<sup>32)</sup> 그리고 성경의 동성애를 규정한 구절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동성애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앞의 주장과 모순되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는 식의 전혀 반대의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가 동성애적 해석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동성애 관계로 해석하고, 롯과 나오미의 관계도 동성애 관계로 해석한다. 백부장과 종의 관계<sup>33)</sup>도 동성애 관계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동성애적 해석을 하는 이들에 의하자면, 예수님[예수가 사랑한 남자(The Man Jesus Loved)와]의 경우도, 사도 바울의 경우도 모두 동성애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sup>34)</sup> 물론 예수님의 경우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동성애적 행위를 하시는 분으로 의심하게끔 아리송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말이다. “이렇게 임힐[解釋될] 수도 있다” 등의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기독교 전통[傳統 또는 正統]과 성경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의 창안한 개인적인 해석 방법을 가지고 말이다. 문제는 연구자 스스로 자신들이 기독교적 정통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해석들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다 하겠다.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그것도 세계적인 대학교의 교수라는 점과 그곳의 박사 학위의 소유자라는 점은 그러한 심각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인 대니얼 A. 헬미니악(Daniel A. Helminiak)은 자신의 책, “2장. 『성서』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Helminiak, 2003: 13-34)에서 “문자 그대로 읽기”(literal reading)와 “역사-비평적 읽기”(historical-critical reading)로 나누어서 양자를 서로 비교한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 문자적인 읽기가 지닌 한계를 영어 관용어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헬미니악에 의하면 이런 식의 논리다. “to be out in left field”는 문자적으로는 “왼쪽 필드에 나가 있다”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아주 이상하다”,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뜻을 먼저 강조한다. 헬미니악은 한 마디로 성경의 문자적인 읽기를 붕괴시키기 위해 그러한 선행 작업(先行作業)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다윗과 사울 [삼상16:21; 삼상15:23]의 관계에 대한 헬미니악이 구사하는 동성애적 해석이다. 헬미니악의 해석에 의하자면, 아버지 사울 왕 그리고 아들 요나단은 양치기 소년 다윗을 사이에 둔 동성애적 삼각관계가 된다. 동성애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다윗과 치정(癡情)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한

---

보여주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죄악이 동성애였다고 결론 내린다.(Peterson, 2016: 17-31; 김진규, 2017: 99: 11번 각주 재인용).

32) “이슬람에서도 동성애는 간통이나 혼외정사와 마찬가지로, 신의 계율을 어기는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된다. 그 근거는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한 『꾸란』의 구절이다. 예언하 무함마드가 한 ‘말’(하디스)을 집대성한 언행록(수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너희는 두 사내가 롯이 목격했던 죄를 범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를 죽이라’”(de Larocque, 2007: 119).

33) 김득중 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조하라. “물론 헬라어 단어 “παῖς”가 “어린이(child), 아들(son), 종(servant)”을 다 의미하기는 한다. 이 단어는 ‘아들, 이나 종’ 어느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말 성서에서도 흔히 종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마태가 ‘백부장의 병든 παῖς’라고 말할 때는 오직 παῖς란 단어만 사용한 반면에(마8:7, 8, 13), 백부장이 권위의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즉 주인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에는 ‘종’ 또는 ‘노예’를 뜻하는 δούλος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관되게 세 번씩이나 παῖς란 단어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병든 사람이 ‘종’이 아니라 백부장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태의 본문에서 παῖς를 ‘아들’이라고 번역하여 해석한 울리히 루츠(Ulrich Luz)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된다.”(Luz, 2001: 8; 김득중, 2016: 259).

34) 유다(Judas)의 경우를 동성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1986년 테렉 자만 감독의 유명한 영화에서도 묘사된 것처럼, 카라바초는 양성애자였다. 그 때문에 예수와 유다, 요한 간의 삼각관계는 동성애를 암시한다는 주장도 있다[283 페이지에 있는 카라바초의 <그리스도의 체포>(1602) 그림 참조] [같은 책 283 페이지에 있는] 로드비코 카라치의 <유다의 입맞춤>(1598)의 경우도 참조하라.(Stanford, 2016: 282-295).

여자를 두고 왕과 왕자[아버지와 아들]가 대립한 것도 좀 그런데, 한 남자를 두고 아버지 왕과 아들 왕자가 대립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헬미리악이 이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다.

「사무엘상」 16장 21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왔고 그[다윗]가 그 앞에서 발기했을 때 그[사울]는 그를 무척 사랑했다”(When David came to Saul and he[David] had an erection in his presence, he[Saul] loved him greatly) 나중에 예언자 사무엘(Samuel)이 내놓고 사울에게 다윗과 정사를 벌인 일을 비난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항의했다. “분명히 뒤에서 찔러 넣은 행동은 죄가 되요.”(Surely, thrusts in the rear are on offense, 삼상 15:23)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이 금하는 남성 간 항문 성교를 가리키는 언급이다.(Helminiak, 2003: 185-186).

씨어도어 W. 제닝스 주니어(Theodore W. Jennings, Jr.)는 또 어떤가? 제닝스도 자신의 책, 『예수가 사랑한 남자』(The Man Jesus Loved: Homoerotic narratives from the new testament)의 “제1장. 동성애와 성서학적 해석”(Chapter 1. Homosexuality and Biblical Interpretation)에서(Jennings, 2011: 12-29), “성경재해석하기”(Rereading the Bible)와 더불어 “게이 해석을 위한 전략”(Strategies of ‘Gay Reading’)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게이 해석을 위한 전략을 사용하여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시도한다.<sup>35)</sup>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은 동성애혐오적 독해들이 텍스트를 모호하게 읽도록 만드는 것에, 즉 성서의 의도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을 수반하는 것으로서의 해석에 관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게이를 지지하는’ 해석이다. 이런 종류의 해석은 요나단(Jonathan)과 다윗(David) 또는 룿(Ruth)과 나오미(Naomi)의 이야기를 게이에 대한 실증적인 방식으로 읽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다. ... 이 책에서 너의 의도는 동성애 혐오와 게이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서 구절들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방어적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서에 대한 전통적인 (오)독해가 받을 만한 개연성보다 더 큰 개연성을 부여한다. 그 대신 나는 사실상의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에 대한 검토에, 즉 동성애적 욕망과 관계들을 감싸 안고 긍정하는 많은 증거에 대한 검토에 집중할 것이다(Jennings, 2011: 21, 22, 23; Horner, 1978 참조).<sup>36)</sup>

참고로 존 셸비 스펡(John Shelby Spong) 성공회 전(前) 감독은 “바울 사도도 게이”라고 주장한다.<sup>37)</sup> J. S. 스펡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게이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동성애에 대해 더욱 더 가

35) “P. 프롱크(P. Pronk)는 네덜란드에서 게이 운동을 지지하는 학자이다. 그런데도 저자 프롱크(P. Pronk)는 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인정한다.”(김재성, 2016: 391, 5부 제1장, 2번 각주 인용). Pronk, P. (1993). *Against Nature? Types of Moral Argumentation Regarding Homosexuality*. Grand Rapids, MI: Eerdmans. 279. “Wherever homosexual intercourse is mentioned in Scripture, It is condemned”

36) “성공회 감독 휴 몬테휘오레는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성연애자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예수가 선천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었다면 실제로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 한 그런 독신의 성향은 당시 큰 죄가 되지 않았다. 몬테휘오레에게 영향을 받은 로빈슨은 예수가 동성애인이 이성애인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물론 전통적인 대답은 예수가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이다.”(Phipps, 2006: 135-136).

37) “교회는 동성애가 정상이 아닌 악이라고 노골적으로 정죄하는데도, 동성애를 가장 가열차게 정죄하는 교회 자체가 그 안수 받은 성직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동성애자 비율을 갖고 있다. 정말이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증오심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그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제의(祭衣) 속에 숨어 있는 동성애자 자신들에게서 표출되고 있다.”(Spong, 2005: 73). 존 S. 스펡(John S. Spong)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udith Butler]버틀러는 이성애자가 사실상 동성애 욕망을 갖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철저히 이성애를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동성애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강하게 부정하는 환자에게 ‘그럴수록 당신이 그것을

혹하게 다루었다는 것이다.<sup>38)</sup> 친동성애자들의 이러한 게이 해석들은 한(制限)도 끌도 없다. 이들의 주장들이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John S. Spong 주교] 바울이 게이였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는 욕망을 깊은 곳에서 억누르고 자기 혐오적이며, 자신의 욕망을 완강하게 부정했으며, 자기 판단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통해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했으며, 그 통제가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에 그 자신마저도 자신의 이런 사실을 직면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억압은 살인적이다. 그것은 억압당하는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때로는 그의 방어적 분노 역시 자신에 대해 도전하며 위협적인 사람, 혹은 그가 극히 무서워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죽인다.(Spong, 2007: 199, 강조는 본 연구자).

### (3)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로 퍼즐을 잘못 맞춘 이들에 대한 답변

문서들이 정통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먼저 『마가의 비밀복음』의 진위성의 문제를 크레이그 A. 에반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수고가 쓸모없는 것, 즉 『클레멘스의 편지』와 그 안에 있는 마가의 비밀복음 인용구들이 속임수라는 사실이다. 학자들이 이미 이를 의심해왔지만 문서에 대한 최근의 위조 탐지학 문서 전문가들은 이 문서의 필적이 모든 스미스의 친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한다.<sup>39)</sup>(Evans, 2011: 130-131). 린 피크넷과 클라이브 프린스(Lynn Picknett and Clive Prince)도 그들의 저서 『다빈치 코드와 숨겨진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들』(The Templar Revelation)에서 『마가의 비밀복음』의 내용이 동성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 그러나 일부 독자들이 생각하듯이, 이 입문의식에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었을까? 모던 스미스는 확실히 그럴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왜냐하면 알몸의 청년이 천 하나만 달랑 걸치고 그의 스승인 예수와 단 둘이 밤을 보냈다는 기록이 특별히 그런 상황을 암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추론은 너무 현대적이고 가벼운 해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전수자와 전수받는 자가 외부와 격리된 곳에서 어떠한 성적인 접촉 없이도 오랫동안 지내는 일은 신비주의자들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Picknett & Prince, 2006: 401-402). 에반스는 『빌립 복음서』의 구절은 괄호처리 한 것처럼 분명하지 않는 본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의 동반자는 막달라의 마리아. [...] 제자들보다 그녀를 더 [...]그녀의 [...]에 입맞춤[...]”(Evans, 2011: 284). 본문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이는 해석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제닝스의 게이적 해석에서의 ‘사랑’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떠날 때에 같은 본문에서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닝스는 자신의 ‘게이적 해석 방법’에 따라 이를 예수님의 동성애 상대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이해하였던 것을 불

---

원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듯이, 버틀러는 자신의 동성애 욕망을 강하게 부정하는 이성애자에게 ‘그럴수록 당신이 동성애를 원했다는 것은 자명해집니다.’라고 말한다.”(이현재, 2007: 118-119). 버틀러의 우울증과 동성애에 대한 이론은 다음 책의 해설을 참조하라.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38) 참조, 수잔 스카이어(Susan Squir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이라는 인물로 거듭나기 전에 이미 성인이었다는 점과 그가 바리새파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울은 분명히 유부남이었을 것이다.”(Squire, 2009: 125).

39) “...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단편적인 정황에 대한 증거와 필적에 관한 증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Evans, 2011: 349, 4장 20번 각주).

수 있었다. 이에 반해서 『예수의 무덤』(The Jesus Family Tomb)의 저자인 자코보비치와 펠레그리노(Jacobovici & Pellegrino)는, 자신들의 책에서 ‘같은 인물’을 놓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동성에 상대가 아닌,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예수가 어둠속으로 끌려갈 때, 흠이불만을 몸에 두른 채 예수의 뒤를 따랐던 이름 없는 소년의 슬픈 이야기를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군인들이 흠이불 자락이라도 잡아서 소년을 붙잡으려 했을 때, 소년은 문자 그대로 흠이불을 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달았다. 마가가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예수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암시만을 글에 남겨두려 했던 것은 아닐까?”(Jacobovici & Pellegrino, 2007: 328-329). 제닝스는 게이적 해석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성애의 단서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자코보비치와 펠레그리노는 예수님의 가족[結婚關係]의 무덤과 같은 그 무엇을 발견했었기 때문에, 즉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분명 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자코보비치는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 기대었던 습관을 기억하면서 이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정통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제닝스나 자코보비치의 해석은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온 단순히 그들만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이나 그와 관계있는 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자 하는 제일의 목적은 아마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점을 항변(抗辯)하기 위함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는 다른 정경 외의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통기독교 관점에서 있는 본 연구자는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성경이나 다른 텍스트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주세요”라는 그들의 견해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아닌 핑계처럼 들리는)들을 통해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논증 1: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 논증 2: “동성애는 바뀔 수 없다”
- 논증 3: “동성결혼은 민권의 문제다”
- 논증 4: “예수님은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다”
- 논증 5: “당신이 어떻게 나를 차별할 수 있어?”
- 논증 6: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내 동성애를 인정해 주신다.”
- 논증 7: “이혼을 좀 봐!”(Lutzer, 2011: 95-115, “4장: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 참조).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자신들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정당화하고자 해도 성경이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단정합니다. 또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증도 아닐뿐더러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차별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반드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확실히 해 두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공동체에서 동성애는 죄다”,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동성애적 삶으로부터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다만 동성애를 그렇게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의 또 다른 이유 즉 부차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부차적(副次的)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여보자는 것이다. 어윈 W. 루처(Erwin W. Lutzer) 박사가 그의 책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입을 열다』(The Truth About

Same-Sex Marriage: 6 things you must know about what's really at stake)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던 것처럼 말이다.

... 또한 나는 동성애 사회에 연민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나는 그들뿐 아니라 이 상처 입은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가 영원한 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유일한 죄인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정죄할거라고 말씀하지만, 최고의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는 다른 죄들도 똑같이 정죄한다. 우리가 절벽 건너편에 있는 동성애자들한테 그저 소리만 지른다면, 다시 귀에 들려오는 거라곤 우리 목소리의 메아리뿐 일 것이다(Lutzer, 2011: 22).

본 연구자는 동성애 문제는 요한복음 8장 3-11절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음(姦淫)은 죄(罪)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容恕)해 주셨다. 동성애(同性愛)도 하나님 앞에서 죄(罪)다. 그렇지만 동성애와 동성애자 또한 예수님의 연민(憐憫)의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간음한 여인은 계속적으로 간음(姦淫)<sup>40</sup>을 행했을까? 하는 문제다.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그곳에 안주(安住)했을까? 간음한 여인은 과거의 삶을 지속(性的逸脫)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얘기하고 다녔을까? 간음하다 잡힐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향변하고 구걸하였을까?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경험했다면 과거의 삶의 청산(清算)했을 것이다. 그것도 완전 깨끗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메타노이아(μετάνοια, metanoia)라는 것은 자정의 즉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동성애자들의 삶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간직하고 성실히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물론 동성애라는 과거의 성향과 습관과 완전한 결별[訣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오늘날, 동성애의 관계에서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명령했을 때에, 저들을 물러났지만,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반대자들은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극단적으로 취급했다는 점이다[이는 극단적 동성애자들의 행태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한 극단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순애는 자신의 상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 직접적인 질문에 수진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곤 한참이 지나서야 쾅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소도미와 고모 ... 이런 비슷한 말이 성경에 나와요? 회경이가 저보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개 엄마가 말했대요.”(조순애, 2010: 282).

40) 동성애가 유전적이라고 했을 때(이 표현을 맞지 않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하지만) 간음 또한 유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물론 본 연구자는 단지 유전적 요인으로만 취급할 수 없다고 본다) 그 경우가 바로 여자의 경우에는 “넴포마니아(nymphomania)” 남자의 경우에는 “사티리아시스(satyriasis)”라고 불리는 색정광(色情狂)이 그것이다. 자신들의 의지 밖에 있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간음을 단죄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되는 것인가. 색정광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지속적으로 그것도 내놓고 그러한 경향을 표현한다면 세인들은 그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내가 색정광 환자이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조심스러워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이러한 성향을 보인 누군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한 성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요령 것 너의 성향에 충실히 해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특히 자신의 자녀에게는 더욱 더 ...)

신(新)무신론자의 책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동성애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극단적 형태로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들의 비판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기독교 또는 종교로 극단적인 환원((極端的還元)”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원인들과 동기들의 복합적인 생산물[歷史的結果物]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야 할 점은 이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바라보아서도 극단적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조순애가 지니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녀가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구절에 대해서는 정통기독교에 속하는 연구자들이 한 번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답할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즉 “... 동성애라는 주제와 관련해 기독교적 구원의 메시지나 하느님의 창조 의지, 인간의 총체성 회복,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 문제라는 주요한 메시지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조순애, 2010: 275). 조순애의 이 지적에 대해서 정통기독교의 관점에서 서 있는 자라면 한 번쯤 대답해 주는 것 또한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통기독교 관점에서 말이다.

### III 나가는 말

#### 1 먼저 요약하기

정경은 흑백사진과도 같다. 원본은 갖추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완전한 퍼즐 조각이 있어야 한다. 정통 기독교는 정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예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른 퍼즐 조각[異質的文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흑백사진[原本]도 없이 예수 퍼즐을 완성하다 보니, 잘못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즉 정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만들어진 예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퍼즐을 원본도 없이 잘못 맞춰졌기 때문에 정경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기혼자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동성애자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과 관련[性關聯]해서 잘못 맞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는 다른 퍼즐 조각으로 잘못 맞춰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정경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들 만들어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다.

#### 2 잘못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유

그렇다면 다른 퍼즐 조각으로 잘못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行動]를 하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정경에 대한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지적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정경 즉 신구약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경과 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퍼즐 조각 [靈知主義文書 等]을 가지고와서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경이 아닌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다. 독신사제들의 경우 결혼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결혼한 예수에 관한 정경 밖의 다른 퍼즐 조각을 찾고자 하며, 동성애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동성애자처럼 보이는 예수에 관한 자료를 정경 밖의 다른 퍼즐 조각을 찾고자 한 것이다. 사제 결혼과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제일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가장 강력한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신(神=예수)은 결혼했다. 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다. 더 나아가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성애를 하셨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믿는 신이 결혼했는데 누가 결혼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믿는 신이 동성애자라면 동성애를 한다고 누가 비방할 수 있겠는가. 독신생활을 거부하는 사제들과 동성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심리적 만족감(一種의 心理的滿足感)을 위해 그러한 자료들이 정경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집착[과 解釋]하며, 이러한 문서에 대해 정경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3 사족달기: 나만의 분석

『예수는 결혼했을까?』가 출판된 후 조지 껄럼 목사는 미국 전역에 걸쳐 2,517명의 성직자를 대상으로 예수의 결혼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오직 4%의 가톨릭 신부들만이 예수가 결혼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설문에 응했던 가톨릭 신부의 대다수가 사제들의 결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79%의 개신교 목사들과 11%의 유대교 랍비들은 예수가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Phipps, 2006: 24 재인용).

위의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앞에서 본 연구자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독신인 가톨릭 신부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에 대해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오직 4%(?)만이 결혼설을 믿고 있다니? 아마 성혁명 이후 결혼을 지지하였던 많은 사제들이 결혼을 찾아서 가톨릭교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그 대신에 가톨릭교회 안에 동성애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개신교 목사들이 79% 나온 것도 신학이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기 때문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유대교 랍비의 11%만이 예수님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유대교[猶太教]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는 성과 관련해서 인간으로서의 예수(一般論에 가까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참고문헌

- 구미정 (2010). “성, 동성애 그리고 죄: 기독교의 불편한 진실을 재고함”. 숨 프로젝트 엮음.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파주: 한울. 256-273.
- 김득중 (2016). 『초대 기독교와 복음서』. 서울: kmc.
- 김영봉 (2006). 『다빈치 코드는 없다』. 서울: IVP.
- 김용욱 도올 (2007). 『기독교성서의 이해』. 서울: 통나무.
- 김재성 (2016). “5부, 제1장,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389-413.
- 김진규 (2017). “최근 동성애 논쟁의 주요 쟁점들: 제임스 브론슨의 동성애 관련 구약 본문 해석에 대한 비평”. 『신앙과 학문』. 22(1). 91-120.
- 박영호 (2007). 『읽어버린 예수: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서울: 교양인.
- 신득일 (2008). “소돔의 죄: 동성애인가? 약자에 대한 냉대인가?” 『성서와 신학』. 48. 7-36.
- 심재관·최종덕 (2016). 『승려와 원숭이: 생물 철학자와 인도 철학자의 불교에 관한 12가지 대담』. 파주: 동녘.
- 이동주 (2017). 『이슬람의 왜곡된 진리』. 서울: CLC.
- 이형도 편저 (2005). 『다 빈치 코드의 비밀문서』. 이레미디어.
- 조순애 (2010). “동성애와 기독교 세계관: 하느님의 큰 사랑은 경계를 나누지 않는다”. 숨 프로젝트 엮음.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파주: 한울. 274-299.
- 최종휴 (2016). 『성경이 꾸란에게 말하다』. 서울: CLC.
- 황태연 (2017). 『이슬람 이야기』. 고양: 좋은땅.

- Abbott, E. (2000). *A History of Celibacy*. 이희재 역 (2006). 『독신의 탄생』. 해냄.
- Aslan, Reza (2013). *Zealot: The Life and Times of Jesus of Nazareth*. Random House. 민경식 역 (2014). 『제롯』. 서울: 와이즈베리.
- Bock, D. L. & D. B. Wallace (2007). *Dethroning Jesus*. Nashville, TN: Thomas Nelson. 박규태 역 (2012). 『예수 폐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Bologene, Jean Claude (2004). *Histoire du Celibat et des Celibataire*. 권지현 역 (2006). 『독신의 수난사』. 서울: 이마고.
- Burridge, Richard A. (2013). *Four Gospels One Jesus?: A Symbolic Reading*. London: SPCK. 손승우 역 (2017). 『복음서와 만나다: 예수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 서울: 비아.
- Burstein, D. (Ed.). (2004). *Secrets of the Code*. Armonk, NY: Baror International. 광재은·권영주 공역 (2005). 『다 빈치 코드의 비밀』. 서울: 루비박스.
- de Larocque, Gonzague (2003). *IDEes Recues: Les Homosexuels*. Le Cavalier. 정재근 역 (2007). 『동성애』.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Doherty, Earl (1999a). *The Jesus Puzzle. Did Christianity Begin with a Mythical Christ?: Challenging the Existence of an Historical Jesus* 강경수 역 (2007a). 『예수 퍼즐(1): 기독교는 신화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는가?』. 서울: 썩크뱅크.
- Doherty, Earl (1999b). *The Jesus Puzzle. Did Christianity Begin with a Mythical Christ?: Challenging the Existence of an Historical Jesus*. 강경수 역 (2007b). 『예수 퍼즐(2): 기독교는 신화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는가?』. 서울: 썩크뱅크.
- Ehrman, Bart D. (2004). *Truth and Fiction in the Da Vinci Code*. Oxford University Press. 이병렬 역 (2005). 『예수는 결혼하지 않았다』. 서울: 안그라픽스.
- Ehrman, Bart D. (2003). *Lost Christiani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박철현 역

- (2008).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서울: 이제.
- Ernst, Carl W. (2003). *Following Muhammad: Rethinking Islam in the contemporary Worl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최형목 역 (2005). 『무함마드를 따라서: 21세기에 이슬람 다시 보기』. 서울: 심산.
- Etchegoin, Marie-France & Frederic Lenior (2004). *Da Vinci: L'enquete*. 이승재·이희정 공역 (2005). 『추적: 다 빈치 코드의 진실과 거짓』. 서울: 문학세계사.
- Evans, Craig A. (2006). *Fabricating Jesus*. Downer Groves. III: IVP. 성기문 역 (2011). 『만들어진 예수: 누가 예수를 왜곡하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 Fricker, Denis (2005). *Idees Recues: Jesus*. Paris: Cavalier Bleu. 최애리 역 (2007). 『예수: 신이 된 인간인가, 인간이 된 신인가』. 서울: 웅진씽크빅.
- Gnilka, Joachim (2004). *Bibel und Koran: Was sie verbindet, was sie trennt*. Freiburg: Verlag Herder. 오희천 역 (2005). 『성경과 코란: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가』. 중심.
- Helminiak, Daniel A. (2000).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millennium edition. NM: Alamo Square Press. 김강일 역 (2003).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서울: 해울.
- Jacobovici, S. & C. Pellegrino (2007). *The Jesus Family Tomb*. 강주현 역 (2007). 『예수의 무덤』. 서울: 예담.  
\*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심차 자코보비치와 고생물학 박사인 찰스 펠리그리노 그리고 <아바타>와 <타이타닉>의 제작자로 알려진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제임스 캐머런(James Cameron) 감독이 직접, “추천의 글”(6-17)을 썼다.
- Jennings, Jr., T. W. (2003). *The Man Jesus Loved*. 박성훈 역 (2011).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서울: 동연.
- Küng, H. (2003). *The Catholic Church*. 배국원 (2013). 『가톨릭의 역사』. 을유문화사.
- Life Science (n.d). *Zukai "Shuukyouchizu" De Omoshiroi Hodo Sekai Ga Wakaru*. Tokyo: Mikasa-Shobo. 노경아 역 (2017). 『세계 5대종교 역사도감』. 초판2쇄. 서울: 이다미디어.
- Lutzer, Erwin W. (2010). *The Truth About Same-Sex Marriage*. Moody Publishers. 홍종락 역 (2011).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입을 열다』. 서울: 두란노.
- Lutzer, Erwin W. (2004). *The Da Vinci Deception*. Tyndale House Publishers. 이용복 역 (2004). 『다 빈치 코드 깨기』. 서울: 규장.
- McLaren, Brain D. (2007). *Everything Must Change*. Nashville. TN: Thomas Nelson, Inc. 김선일 역 (2010). 『예수에게서 답을 찾다』. 서울: 포이애마.
- Pagels, E. (1981). *The Gnostic Gospels*. New York: Random House. 방건웅·박희순 공역 (2006). 『성서 밖의 예수』. 서울: 정신세계사.  
\* 이 책은 그 후에 Elaine Pagels, *The Gnostic Gospels*. (New York: Random House, 1981), 하연희 역, 『숨겨진 복음서 영지주의』, (서울: 루비박스, 2008)로 번역되기도 했다. 본 연구자는 방건웅·박희순 공역이 개인적으로 읽기 편해 선택했다. 비록 오자(誤字)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읽기 편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 Peterson, B. N. (2016). "The Sin of Sodom Revisited: Reading Genesis 19 in Light of Torah"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9(1). 17-31.
- Phipps, W. (1996). *The Sexuality of Jesus*. 신은희 역 (2006). 『예수의 섹슈얼리티』. 이룸.
- Picknett, Lynn & Clive Prince (1997). *The Templar Revelation*. 권인택 역 (2006). 『다빈치 코드와 숨겨진 역사』. 서울: 교문사.
- Qureshi, Nabeel (2016). *Seeking Allah, Finding Jesus*. Grand Rapids. MI: Zondervan. 박명준 역 (2017).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2쇄. 서울: 새물결플러스.
- Ray, Darrel W. (2012). *Sex & God*. 김승욱 역 (2013). 『침대위의 신』. 어마마마.
- Schnabel, Ulrich (2008). *Die Vermessung des Glabuns*. Karl Blessing Verlag. 이지혜 역 (2013). 『종교는 왜 멸망하지 않는가』. 서울: 열린세상.
- Spong, John Selby (2001). *A New Christianity for a New World*. 최중수 역 (2005). 『새 시대를 위한 새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 Spong, John Shelby (2005). *The Sins of Scripture: Exposing the Bible's Texts of Hate to Reveal the God of Love*. 김준년·이계준 공역 (2007). 『성경과 폭력』. 한국기독교연구원.
- Sprinkle, Stephan V. (2011). *Unfinished Lives: Reviving the Memories of LGBTQ Hate Crimes Victims*. 황용연 역 (2013). 『누가 무지개 깃발을 짓밟는가』. 서울: 알마.
- Squire, Susan (2008). *I don't*. 박수연 역 (2009). 『I don't: 남자는 덮고 싶고 여자는 알고 싶은 결혼의 역사』. 서울: 뿌리와이파리.
- Stein, Robert H. (1996). *Jesus the Messiah*. 황영철 역 (2001). 『메시아 예수』. 서울: IVP. 특히 “2장. 어디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예수의 생애 연구를 위한 자료”. 25-56 참조
- Strobel, L. and G. Poole (2006). *Exploring the Da Vinci Code*. Zondervan. 황혜정 역 (2006). 『리 스트로벨의 다 빈치 코드 해체』. 서울: 사랑플러스.  
\* 이 책 부록에는 스트라우스(Mark L. Strauss). “『다 빈치 코드』에 관한 FAQ”가 143-151에 실려있다.
- Sue, Derald Wing and David Sue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5th edn. John Wiley & Sons. 하혜숙·김태호·김인규·이호준·임은미 공역 (2011). 『다문화 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Thompson, Willie (2015). *Work, Sex and Power: The Forces That Shaped Our History*. London: Pluto Press. 우진하 역 (2016). 『노동, 성, 권력: 무엇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는가』. 서울: 문학사상.
- Wills, Gary (2001). *Papal Sin*. 박준영 역 (2005). 『교황의 죄』. 서울: 중심.
- Yalom, Marilyn (2001). *A History of the Wife*. 이호영 역 (2012). 『아내의 역사』. 책과함께.
- Yalom, Marilyn and Theresa Donovan Brown (2015). *The Social Sex: A History of Female Friendship*. HarperCollins. 정인지 역 (2016). 『여성의 우정에 관하여』. 서울: 책과함께.

#### [재인용문헌]

- Berry, Jason (1992). *Lead Us Not into Temptation: catholic Priests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Doubleday.
- Fox, Thomas (1995). *Sexuality and Catholicism*. George Braziller.
- Horner, Tom (1978). *Jonathan Loved David: Homosexuality in Biblical Tim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Jeffrey, J. R. (1976). *Frontier Women: The Trans-Mississippi West, 1840-1880*. New York: Hill and Wang.
- Luz, Ulrich (2001). *Matthew 8-20: Commentary Hermeneia-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 Ruether, Rosemary (1978, May 29). "The Sexuality of Jesus," *Christianity and Crisis*. 38.
- Sipe, A. W. Richard (1990). *A Secret World: Sexuality and the Search for Celibacy*. Brunner/Mazel Publishers
- Sipe, A. W. Richard (1995). *Sex, Priests, and Power: Anatomy of a Crisis*. Brunner/Mazel Publishers. 1995). 26.
- Smith, Morton (1973). *Clement of Alexandria and a Secret Gospel of Mar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 James G. (Ed.) (1989). *Gay Priests*. Harper & Row.
- Young, A. E. (1876). *Wife*. No 19. Hartford. Conn.